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 VII_

지역사회와 교회분과 세미나

| 일시 |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제1성전 출입구)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지역사회와교회분과

인/사/말



김삼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 차

기조강연 	9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복지”	
_ 우수현 교수(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발 표 1 	32
“과천소망교회 문화사역”	
_ 과천소망교회	
발 표 2 	43
“해피월드 해피뱅크사업소개”	
_ 거룩한 빛 광성교회_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발 표 23 	60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황 및 발전방안”	
_ 양혜원(충신대학교)	
_ 김희수(한국성서대학교)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지역사회와 교회분과 -

1. 일 시 : 2010. 10. 15(금) 오전 10:00 ~ 오후 1: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10:30	개회예배	인도_ 이금구 목사(사랑의교회 이웃사랑선교부) 기도_ 인도자 설교_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특송_ 과천소망교회 축도_ 설교자
좌장 :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10:30~11:00	기조강연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복지 ” _ 유수현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11:00~11:30	발표1	“과천소망교회 문화사역” _ 과천소망교회
11:30~12:00	발표2	“거룩한빛광성교회 해피뱅크” _ 해피뱅크
12:00~12:30	발표3	“사랑의교회 이웃사랑부” _ 양혜원 교수(총신대학교), 김희수 교수(한국성서대학교)
12:30~13:0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복지

승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유 수 현 교수

I. 들어가는 말

1. 교회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모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70불도 안되던 60년대 초부터 5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도 숨 가쁘게 변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욕구 수준도 많이 바뀌어졌다. 이 기간 내에 기독교회도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여 왔지만 개교회 중심의 성장과 영혼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대두되었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급속하게 변화된 시민들의 욕구와 생활 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한국교회는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의 모체가 되어 왔다는 것은 기독교 2천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Reinhold Niebuhr는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을 낳은 어머니였으나 교회 내의 불일치가 사회복지실천을 세속 사회로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의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의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이 교회 밖의 일처럼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기원은 교회가 사회복지의 주체였으나 사회복지가 세속화되어 감에 따라 그 주도적 역할이 축소되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복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

교회는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교인들이 먼 곳에서도 출석하고 있어 교회 주변을 지칭하던 지역사회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 라고 하는 소리가 높았고 받는 교회에서 베푸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말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총예산 중 극히 일부분을 이웃사랑에 썼다고 생색내는 인색한 부자의 자세를 하루속히 떨치고 성장의 실력을 뽐내기 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었다. 이러한 견해는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찾아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적 그리고 조직적 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따라서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가 과거 20-30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고 그 내용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복지를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체계나 방법이 비전문적이어서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이지만 그 표현의 동기나 방법, 대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웃사랑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대형교회들은 이제 사회복지재단과 같은 독립법인을 조직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실천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수행예산의 상당부분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독교회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데는 자유롭지 않은 측면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사업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에 참여하면서 개 교회 간에 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간에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복지 능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현재 교회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실상들을 파악하여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1). 김기원, “교회의 사회적 기능”,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예안, 1995), pp.13-26.

2. 개념 및 용어

오늘 주어진 주제에서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봉사 등의 용어가 대두된다. 이들 용어는 그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에 이 점을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봉사라는 말로 표현될 때도 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함께 잘 살자는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사회복지라는 개념에는 자발적인 도움과 권리에 의한 제도적인 지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중에는 사회사업(social work)과 사회봉사 등이 있다. 사회복지란 제도 즉 hardware에 해당되고 사회사업은 실천기술 즉 software에 해당된다. 그러나 요즘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는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란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사회사업이란 용어는 서서히 사회복지실천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는 사회봉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과거에도 교회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부족을 고려하여 기독교인들이 친근감을 느끼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교회사회봉사’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²⁾ 사회봉사란 교회나 신도들의 자발적인 도움의 개념이 강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교회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를 자발적 도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포함된 활동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y)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³⁾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간과 상관없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 모두는 대면적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지역사회 이상으로 기능적 지역사회 즉 공동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예수교장로회(통합) 사회봉사 총람 편찬을 위하여 1992년에 신학자, 목회자, 사회복지학자 등 19명이 모인 자문회의에서 개신교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에 ‘사회선교’, ‘기독교 사회복지’, ‘사랑의 실천 운동’, ‘교회사회봉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의 통일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3) 김범수, 「지역사회복지론」(서울:학현사, 2010), p. 17.

그러므로 이 글에서 지역사회란 지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두기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합성어이지만 그 의미는 지역사회 주민의 생존을 위하여 공적·사적 기관이 협동하고 조직화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 시책 및 방법의 체계인 것이다.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사의 기관이 전개하는 사회복지활동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1. 교회는 최후의 생명안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기업이 부도나고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나며 노숙자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었다. 사회안전망이란 위험에 직면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안전망은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국가이며, 세 번째가 민간 사회복지조직이다.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때 우선은 가정이 그 문제에 대처하려 들지만 가정의 능력이 그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벅찰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이 도와주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세 개의 사회안전망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회가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박종삼은 지역교회는 지역주민의 생명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생명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⁵⁾ 교회는 가정의

4) 송정부, “지역복지”, 김영모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85), p.182.

능력이나 국가의 제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민간사회복지조직으로부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생명을 담보해낼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인 것이다.

2.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

교회란 기독교인 즉 신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에크레시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의하면 에크레시아(ekklesia)란 ‘부름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죄 가운데에서 빼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였다.⁶⁾ 코이노니아(koinonia)란 떡을 땀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뜻으로 신도들의 물질적,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산, 공유, 공생, 상부상조의 공동체를 의미하고⁷⁾, 디아코니아(diakonia)란 섬김을 뜻하는 것으로 봉사를 의미한다.⁸⁾ 그런데 에크레시아,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란 개념은 동시적 개념이지 시차적 개념은 아니다. 위의 세 단어에서 교회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복음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실천은 그 본질의 표현이 되는 것이며, 그 본질과 표현의 양자는 동시적이며 교회와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는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3. 지역사회는 선교와 섬김의 대상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로 가르치셨다. 이 말씀에서처럼 이 지역사회는 교회의 선교의 대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터전인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역사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적 구원과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기 경건만을 과시할 경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보고

5).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서울: 인간과 복지, 2000), p.369.

6).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 대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p.84.

7). Ibid, pp.1029-30.

8). Ibid, pp. 419-20.

분개했던 예수님의 분노가 이제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선교의 대상이자 섬김의 대상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이므로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⁹⁾

4.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교회의 요구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에는 신자들의 신앙을 표현하려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필요와 새로운 빈민의 대두와 이에 대한 교회의 지원 필요성에 의해 출발하였다.¹⁰⁾ 전자의 경우는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전도나 선교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인들은 수혜자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복지에서 결핍되기 쉬운 감정적, 정서적, 영적 교감이 동반되어 수혜자나 수여자 모두 축복에 대한 감사와 힘든 삶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므로 보완적 기능을 해왔다. 이 점에서 교회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차별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빈민의 발견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빈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즉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복지지출이 증대되고, 관료의 경직성, 복지의존적인 도덕적 해이와 비생산적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감소되고 대신 교회를 비롯한 민간기관의 역할이 다시 요청되게 된 것이다.

9). 박종삼, op. cit., p. 255.

10). 박경숙, “교회와 사회복지”, pp.1-6.

Ⅲ.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상의 문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 나름대로 사랑의 실천으로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천 동기나 방법, 대상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기의 문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첫째가는 사명이다.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진정한 신앙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불우한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천 동기가 불분명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

① 자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 이웃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웃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② 세상에서 축복 받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경우가 있다.

③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또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선을 베푸는 경우가 있다.

④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경우가 있다.

⑤ 도와주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 한다는 자신의 심리요법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⑥ 자기의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경우에는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는 동기가 교회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1). 박종삼, “현대 사회의 교회 역할과 사회복지실천 실천”, 『이웃 창간호』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83), p. 5.와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9), pp.13-21.을 참조할 것.

2. 방법의 문제

사랑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실천 방법은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① 교회가 자선을 종교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원조」를 미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복음과 어긋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② 감상적인 동정심만으로 이웃을 원조하는 것은 도움 받는 사람의 의존심을 키우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평가가 없이 동정심만으로 원조하는 것은 이들에게 의존심(dependency)을 조장시키고 자조코자 하는 의욕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어 해를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③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나 개인의 편의대로 원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도움을 제공하는 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회복지실천이 실천되기 때문에 피원조자에게는 실천적 도움이 없으며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④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 생색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불우한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는 신문, 방송에다 생색을 내는 식의 구제 방법은 길거리나 회당에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⑤ 도움을 받는 자에게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을 찍어 주는 구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도움을 주면서 피원조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게 하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여 심리적 손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랑의 실천 방법은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대상의 문제

아무리 진정한 신앙적 동기와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실천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혜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실천이 진실할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도 있다. 대상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기 교회와 자기 교인만을 위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세속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대부분의 자원을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 자기 교인만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인적·물적 자원과 시설 등이 자기 교회, 교인만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면 교회 이외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② 교회가 자원을 사용하여 도와줄 경우에 가장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상은 정부 기관이나 일반 사회단체 또는 전문 사회복지실천 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 대상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까이 대하기도 꺼려하는 대상과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어야 할 것이다.

③ 어린이 일변도의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고아원,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회는 노인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④ 교회의 사회복지실천 대상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내용도 정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포함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지(Cent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의지와 자원 활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실천 의지와 자원 활용의 문제

성규탁의 한 조사 결과는 교회의 자원이 우리 사회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보다 널리 그리고 깊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임을 보고했다¹²⁾. 아울러 목회자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조사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며 여러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자에 이르러 교회의 자원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활용되어야 하나 오히려 지역사회 자원이 교회로 역류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체계화되어 있고 독립법인화 되어 있는 경우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보조받아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자원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경우 교회의 자원은 형식적으로 투입한 채 정부보조금과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의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교회가 생색만 낼 뿐 자원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원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도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교회 재정 운영하듯 지역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결국 들통이 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교회 내의 사회봉사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사실 목회자가 뜻만 있으면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능력이나 지식이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할애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게다가 사회봉사 활동은 목회자보다는 장로나 제직이 주도할 경우 교회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규탁의 조사 결과를 보아 목회자는 방향만을 설정해 주고 전문 지도자나 교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교역자에 의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주도되고, 업무절차가 비 전문화되어 있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교회는

12). 성규탁 외,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 연구소, 1991), pp. 46-47.

교역자가 단기 또는 비정규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채 취득한 기초 자격을 내세워 전문가를 대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실천 보다는 외양만 갖춘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 교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전문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IV. 교회가 가진 사회복지실천 능력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신도들의 모임이므로 그 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모이는 시간도 있으며 전 교인을 구역으로 조직한 조직도 있으므로 교회가 가진 자원은 풍부하다. 이러한 자원을 물질적, 정신적 및 정서적 복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복지 요소란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능력이란 한마디로 교회 내외의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조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박종삼은 교회의 자원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¹³⁾

첫 번째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이는 교회 내부의 여러 교인들을 지역사회 봉사에 동원함을 말한다. 교회 안에는 의사, 법률가, 교수, 간호원, 약사, 사회복지실천가, 전문 기술자 등 전문적 인적 요소는 물론 보통 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들인 평신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 훈련하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 자원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자원은 물적 자원이다. 물적 자원의 동원은 재정적인 것은 물론 생활필수품이 동원될 수 있다. 이는 교인들이 자기 생명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어 갖는다는 정신 하에서 새 것이건 쓰던 것이건 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자원은 시설 자원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건물, 운동장 그리고 여러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자원은 조직 자원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큼 조직으로나 기능적으로 성원을 조직해 놓은 사회 기관은 없다. 특별히 구역 조직은 곧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13). 박종삼(1983), op. cit., p. 6.

홀어져 나간 강력한 기능적인 조직이다. 이와 같은 조직 자원을 사회복지실천 실천에 체계적으로 동원한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인정)이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하고 이에 호응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능력인 것이다.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능력이며 이 능력이야말로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모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V.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오늘의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형태와 대상별 실천 프로그램에 대해 그 모형과 특성 및 사례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형태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참여 형태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참여하는 형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교회의 자원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경우 그리고 간접적으로 교인들의 사회봉사 참여 동기를 조성해 주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겠다(표1).¹⁴⁾

첫째, 적극적 참여형에는 ①교회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시설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별도 독립된 사회복지 법인 운영 모형과 ②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별도 위탁 운영 모형이 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운영 자율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4). 박중삼,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관 Model”,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 제4호(부천: 동연구소, 1994), pp. 18-19.

둘째, 소극적 참여형에는 교회 내의 인적, 물적, 조직적,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교회가 전적으로 투자하여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크지만 교회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사회복지를 통한 간접적 선교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교인이나 일정 지역 내 주민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1〉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형태

구 분	적 극 적 참 여 형		소극적 참여형	간접적 참여형
운영모형	별도 독립법인 운영	별도 위탁 운영	자체 설치 운영	봉사동기교회운영
운영주체	교회가 파송한 법인 운영위원회	교회가 파송한 법인 운영위원회	교회소속운영위원회	교회소속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교회가 직접 투자하여 독립법인 설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교회에 위탁관리	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에 운영위임	교회내 사회봉사부 사업으로 교육, 훈련, 및 파견 운영
주요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의 전형적인 프로그램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아동, 노인, 장애인, 빈민지원 프로그램	사회봉사교육, 훈련,
장 점	운영의 자율권 확보, 정부재정지원	재정부담이 없음, 정부재정지원	운영자율권 확보, 자원동원 원활	재정부담 없음
단 점	재정부담, 정부간섭	정부의 간섭	수혜대상의 범위 제한 가능성	교육과 선교치중 가능성, 사회복지 참여 의식
사 례	영락보린원, 영락경로원	연수세화복지관 (만수감리교회위탁)	아현교회사회복지관덕수교회사회복지관도림교회지역사회개발교육원	교회내 설치된 주부대학, 시민대학 자원봉사자교육원

자료: 유수현.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실천 실천”. 「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더라」. 기윤실총서. 1999.

셋째, 교인들의 사회봉사 동기를 조성하기 위한 봉사 동기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교회가 직접 사회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교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 봉사 활동으로 사회 선교적 책임과 사회 요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동기화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창출하여 제시해 주는 모형이다.

이와 같은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개 교회의 상황과 자원 체계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대상별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대상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되어야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가족 또는 편부모가족, 그리고 소년 가장 등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은 ①사회악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영역, ②인간의 치유 영역, ③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영역, ④정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의 영역, ⑤지역 주민과 교인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영역 그리고 ⑥사회봉사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조직 및 활용의 영역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¹⁵⁾ 그러나 그 어떤 영역이던지 교회와 교인 및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동시에 부합되어야 하며 삼자의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 기관이나 일반 사회단체들이 할 수 없거나 그들 단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사회복지실천 실천 능력과 지역사회의 환경여건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정에 융통성 있는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Ⅵ.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해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최근 주요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파악해보았더니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체계화되어있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표2>.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5).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pp.268-281.

〈표2〉 주요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 비교

기관	설립 년도	운영형태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비고
사랑 의 복지 재단	1996.12	법인운영	사랑의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랑의일터/ 사랑의 그룹홈/ 사랑의 가족/ 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의 19% 지원
		법인수탁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어린이집/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서초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열린세상)/ 방과후 공부방 5개소	
		관련사업	중증장애인요양시설(사랑의 동산) /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명성 복지 재단	2004. 5	법인운영	명성가나안의집, 선교관, 학사관, 복지관명성지역아동센터,	
		법인수탁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치매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관련사업	저소득가정 자립지원사업(모자가정일시숙소, 생활보호자 일시숙소, 맞벌이 가정 자녀 무료급식)/ 노인복지(무료급식, 의료진료, 이미용서비스, 한글교실)/ 아동복지(명성지역아동센터, 불우청소년 후원자결연)/ 서울학사관(지방미자립교회, 선교사, 어려운가정의 대학생자녀 숙소)/선교복지(명성가나안의집)/ 사회복지(연구출판사업)/ 수익사업(자선바자회,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광림 복지 재단	1987. 5	법인운영	광림노인전문요양시설(사랑의집) / 사랑의집 치매센터	
		법인수탁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서초복지관어린이집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복지관어린이집	
		관련사업	국제광림비전랜드(청소년수련시설)	
새문 안복 지재 단	1992.7.	법인운영	영·유아보육사업, 장학사업, 실직노숙자지원사업	1997.7 법인명칭 변경
		법인수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새문안어린이집, 은행나무어린이집 운영수탁	
		관련사업	지역사회봉사와 구제, 소년소녀가장돕기, 사회기관지원, 재활용품수집봉사, 의료선교, 재해구조	

자료: 필자가 2010년도 10월 현재 각 교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 작성하였음.

기관	설립 년도	운영형태	운 영 시 설/ 프로그램	비 고
영락 사회 복지 재단	1939. 7	법인운영	아동복지: 영락보리원, 영락그룹홈,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 영락경로원, 영락요양원,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소규모요양원 장애인복지: 영락애니아의 집, 영락주간보호센터 모자복지: 영락모자원 영유아보육사업: 영락어린이집,	1990. 12 법인명칭 변경
		법인수탁	영유아보육사업: 합실어린이집	
		관련사업	장학사업: 금성장학회	
온누 리복 지재 단	1999. 8.	법인운영	온누리노인요양원,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쉼터	법인지원 금 12%
		법인수탁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 및 노약자 저상버스 운영	
		관련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협동사업 전개, 온누리가족나무 동산, EM사업	
신촌 성결 교회	2000년 이후	교회부속	신촌어린이방과후교실, 신촌가정상담소, 에덴의 집, 서강어린이집	법인없음
		교회운영	마포구거주 소년, 소녀가장 후원, 실직자가정을 돕기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 장학금지급	
		관련사업	신촌사랑나눔카페, 신촌교회호스피스, 신촌문화아카데미	
충현 복지 재단	1991. 3	법인운영	충현복지관, 충현직업훈련시설, 충현공동생활가정, 충현재가복지봉사센터	법인지원 금 15% 이내
		관련사업	충현정보화교육센터	
도림 교회 지역 사회 봉사 센터	1981.	부속기관	도림어린이집, 도림교회신협, 소암장학회,	2001.1 명칭변경
		센터운영	노인학교, 한글학교, 도서관, 경로식당, 나눔사업, 녹색살림터, 사랑의 집수리, 방과후학교, 모랫말꿈터(지적장애),	
		관련사업		
아현 감리 교회 사회 관	1980.10	부설기관	아현사회복지관, 아현어린이집,	
		교회운영	방과후교실, 아현노인교실	
		관련사업	텃밭	

자료: 필자가 2010년도 10월 현재 각 교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작성하였음.

김동배가 1994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표3>. 그 분야별로 보면, 아동복지가 가장 많으며 특히 선교원이 전체 아동복지프로그램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접근하기 용이한 프로그램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나 교정복지 등의 프로그램은 미진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과 젊은이들의 농어촌 지역 기피현상에서 비롯된 다문화가족과 탈북 새터민,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3〉 한국 교회의 분야별 사회복지프로그램

복지 분야	구 체 적 인 사 업 내 용
아동복지(286)	선교원(137), 유아원, 유치원(93), 어린이집, 놀이방(43), 공부방(8), 농번기탁아소 (4), 보육원(1)
청소년복지(62)	공부방(27), 장학사업(15), 기숙사(8), 야학(3), 독서실(3), 계절학교(4) 문화학교(1), 중고등학교(1)
부녀복지(25)	주부교실, 주부대학(22), 직업훈련, 취업알선(1), 모자원(1), 기타(1)
노인복지(97)	노인대학(65), 경로잔치(17), 양로원유아원(10), 경로당(1), 급식프로그램(1), 노인부업알선(1), 재가노인봉사(1)
장애인복지(11)	장애인예배(5), 사회재활훈련(3), 상담(1), 취업알선(1), 장애인수용시설(1)
의료, 정신의료 (23)	무료진료(14), 나환자사업(3), 보건위생방역(2), 아미용봉사(2), 재활시설(1), 병원봉사(1)
교정복지(4)	재소자서비스(1)
지역사회복지 (102)	신협(20), 주민 도서실(17), 시민대학(16), 농수산물 공동구매(12), 주민초청 잔치(6), 마을 소식지(5), 소득증대사업(4), 무료급식(4), 바자회(3), 인권사회운동(3), 영농교육(2), 교회시설개방(2), 중고품교환(1), 공중목욕탕(1), 직장인 예배(1), 결혼교실(1), 기타(2)
상담서비스(3)	가족상담(2), 노동상담(1)
특수선교(6)	공원선교(2), 도시빈민선교(1), 노동선교(1), 선교원 신학(2)

자료: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실태」, 1994.

Ⅷ. 한국교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문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몇몇 기관에서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부진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였고, 공간상의 문제, 실천방법과 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교인들이나 제직들의 낮은 호응도를 지적하였다(표4). 앞에서 제시했던 <표2>, <표3>과 여기의 <표4>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4) 한국 교회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부진 원인

조 사 기 관	부진의 이유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조사연구, 1990. 조사대상: 795개 교회, 1,235명의 교회 지도자	①교회재정문제 40.2% ②교회시설, 공간부족 17.6% ③지식과 기술부족 15.8% ④교인들의 소극성 9.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연구, 1991. 조사대상: 목회자 344명	①교회 재정상의 어려움 47.1% ②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부재 22.4% ③교인들의 낮은 호응 13.7% ④시설 및 공간의 부족 12.2%
사회봉사총람, 1992. 조사대상: 예장 산하 2,008명의 목회자	①재정의 부족 61.4% ②시설 및 공간의 부족 16.1% ③당회, 제직회의 소극적 11.6% ④지식과 기술의 부족 9.9%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의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재정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교역자들의 의견은 앞으로 사회봉사비를 더 많이 지출할 의도가 있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조사결과는 희망적이었다.¹⁶⁾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예장 합동과 통합,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13개 교단 9500여명의 목회자와 전도사 등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로 사용한 재정 비율이 5.0% 미만인 교회는 서울이 3.7%로

16)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2007.

가장 낮았고 이(里) 지역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도시지역일수록 사회봉사비 사용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사회봉사비를 20.0% 이상 사용하는 교회도 시(市) 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가 0.4%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교역자들은 이상적인 구제 및 사회봉사비를 교회 전체 예산의 10~20% 정도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8.3%), 20~30% 정도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33.6%)과 30% 이상을 희망하는 교회(24.5%)도 있어 대다수 목회자들이 앞으로 사회봉사비를 더 많이 지출할 의도가 있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봉사비는 특별현금을 통해 모금하고(61.7%), 불우이웃돕기(38.3%),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방문 및 지원(21.2%), 장학사업(16.7%)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문제는 전문성 확보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활용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교회의 시설과 조직 및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동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문 인력의 채용이나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교회가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교회 상근인력으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교역자들이 직접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역자들이 단기과정 또는 사이버과정의 사회복지교육을 받고 제대로 실천에 대한 훈련도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유자격자 전문가를 대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으로는 교육관(28.3%)을 제일 많이 꼽았으며, 본당(26.5%)과 식당(24.2%)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용공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교회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회나 교역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회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교회의 능력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문제 가운데는 교회의 독특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공간의 확보, 재정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정부의 재정이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기독교회의 특성을 내세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지를 당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의 특성과 자율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보될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

Ⅷ.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앞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그 대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각 교회의 신앙적 성향, 시설자원의 형편,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 교인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 인적자원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교회의 신앙적 성격에 따라 개인 구호 활동을 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 행동적 활동을 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의 시설 형편에 따라 노인과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 교회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농촌지역, 도시중산층 주거지역, 도시빈민층 밀집지역, 상업지역, 학교 촌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사회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도 중요한 변수가 되며, 전문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와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 또는 서민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있는 교회 등에 따라 각각 프로그램의 종류와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아래의 <표5>에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예시하여 보았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분류한 뒤, 소득, 교육, 건강, 심리정서 등의 주제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회의 공통관심사부터 우선순위로 결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5>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대형교회	노숙자쉼터, 직업알선, 실직자정지원센터, 실직자가정 급식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장학사업, 청소년 상담, 탁아시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시민 대학, 생활문화상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신문제작, 근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야간학교, 농촌의료봉사, 가출아동 공동체건립 및 운영, 소년소녀 가장돕기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금연캠페인, 결식아동 도시락 보내기, 청소년컴퓨터 지도, 무료직업상담, 산업시찰 및 역사탐방, 장애인그룹홈 운영, 노인관련 출판물 제작, 새터민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도시교회 중형교회	노숙자 급식보조, 실직자 직업알선 사업, 실직자가정 자매결연, 비행 청소년 상담지도, 불우 청소년 지도, 어린이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무의탁아동 돌사진 찍기, 빈곤여성 한 글교육, 장학사업, 독거노인 효도관광,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새터민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재활전화 상담, 반찬지원, 아미용, 중고제품 재활용품 분리보관, 벼룩시장, 무공해농산물 애용하기, 중증 장애인 나들이 보조 등
소형교회	사회안전망 연결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시설방문, 불우청소년 결연, 요보호여성 말벗하기, 노인에게 안부전화걸기, 독거노인 가정결연, 가사 활동지원, 노인정 방문공연 등
농촌교회	귀농지도세미나, 귀농자 자매결연사업, 무공해농산물 애용하기, 도농직거래를 위한 도시교회와의 연계, 주민토론회, 소비자문제 상담, 소비자협동조합, 수해복구지원, 무료진료, 마을잔치지원, 교회시설개방, 불우청소년 결연, 어린이 공부방 학습지도, 어린이한자교실 지도, 어린이집 운영, 농촌 활동지도, 자연학습장 만들기, 지역 신문 제작, 환경교육, 노인에게 안부 전화걸기, 독거노인 가정결연, 독거노인 효도 관광,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노인목욕보조, 노인 장례지원, 수지침진료, 장애인 외출보조, 환경감시, 중고제품 재활용운동, 재생비누만들기, 청소년지역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료: 김성철, 「Diakonia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선교에 관한 연구」. 평화사회복지연구소 홈페이지의 자료를 필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IX. 맺는 말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는 교회의 본질을 구체화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는 지도자인 교역자들의 실천의지와 평신도들의 참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 과거와는 달리 교회가 개별적인 자선과 봉사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조직하여 직영 또는 수탁운영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여러 교회들이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관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현실적인 지역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 과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교회들은 교회의 자원과 환경적 제약,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교회는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자들에 의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는 교회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교회의 재정부담이 가벼워지는 잇점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확인되었다. 그렇더라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구체화시키는 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에게 지역주민과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신앙교육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이나 환경여건에 따라 작은 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체 지역사회로 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하므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를 구상하는 교회라면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 그리고 교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선택하여 실시하되, 그 참여형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과정에 ①통합성, ②접근용이성, ③자율성, ④효율성 등의 민간사회복지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련 조직들 즉,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자원 특히 시설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들 간에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연계조직과 지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투입과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

Ⅰ 참고문헌 Ⅰ

- 김기원, “교회의 사회적 기능”,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예안, 1995.
-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실태」, 1994.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현사, 2010.
- 김성철. 「Diakonia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선교에 관한 연구」. 평화사회복지연구소 홈페이지.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두란노서원. 「빛과 소금」. 1996. 3월호.
-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 _____. “현대 사회의 교회 역할과 사회복지실천 실천”, 「이웃 창간호」. 서울: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1983.
- _____.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관 Model”, 「기독교사회복지」. 제4호.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1994.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00년 사회복지 조사보고서: 사당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동
북지관,
2000.
- 사랑의 교회 사회복지재단·한국교회사회봉사업연구소. 「교회 사회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 교회, 2001.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 제4호. 부천: 동연구소, 1994.
- 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
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 송정부, “지역복지”, 김영모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85.
- 유수현.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실천 실천”. 「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더라」. 기윤실총서.
1999.
-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이삼열 외 편. 「사회봉사의 현장에서」. 서울: 한울, 1993.
- 이준우역. 「교회사회복지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 차기천. 「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안양: 좋은 생각사, 1994.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이웃」. 서울: 동북지관, 1983.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2007.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예안, 1995.

(2010. 10. 15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기조강연 원고)

과천소망교회 문화사역

〈전시참여단체 소개〉

기관명	과천소망교회
주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전화	02-504-6837~9
팩스	02-503-0329
홈페이지	www.somangin.com
전시영역	지역사회와 교회
사업명	로고스센터와 함께하는 문화사역

1. 기관개요

어머니의 품속같은 포근함과 고향의 아늑한 정취가 베어있는 과천소망교회는 창계산 7천여평에 말씀의 터를 닦은 21세기 선교비전이 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에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꿈, 생명, 사랑을 나누는 ‘섬김과 나눔’, 행복한 ‘친교와 축제’, 은혜로운 ‘예배와 소그룹’,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꿈과미래’가 있는 교회로서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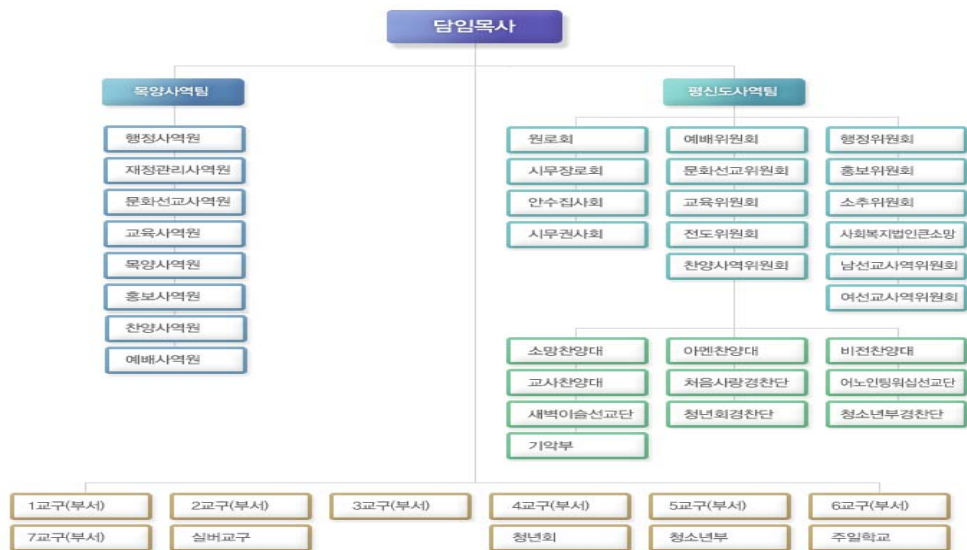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에 기초하여 교회를 운영관리하며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노선을 굳게 지키며 선교, 예배, 교육, 사회복지및봉사, 구제 및 성도의 구제에 최선을 다함

나. 연혁

- 1966년 교회 설립
- 2000년 사회복지 법인 큰소망 설립 복지사역 시작
- 2000년 과천시노인복지관, 문원어린이집 운영 시작
- 2001년 장현승 목사 당회장 취임
- 2001년 로고스센터 부지 매입
- 2003년 로고스센터 추진위원회 발족 예배
- 2007년 로고스센터 기공예배 및 기공식
- 2009년 로고스센터 준공

- 장현승 담임목사
- 연세대대학원 신학박사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과천시교회연합회 회장
- 동서신학포럼 이사장
- 복음주의 개혁신학회 이사장

다. 조직



2. 사업목적 및 개요 : 로고스센터와 함께하는 문화사역

과천소망교회는 청계산 7천여평의 초원위에 새로 신축한 로고스센터(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785㎡) 를 지역사회에 전면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교육/복지, 나눔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현재까지 28개 기업, 43개 학교및단체, 35개 교회를 비롯해 지역주민 약2만명 이용, 높은 만족)

(2009년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모범교회로 선정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3F - 문화공연시설 : 로고스홀(648㎡), 비전홀(224㎡)

2F - 교육연구시설 : 대세미나실(144㎡), 중세미나실(96㎡), 소세미나실(48㎡, 4개), 교수연구실

1F - 복지문화시설 :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카페, 로고스갤러리, 안내실

B1 - 휴식나눔시설 : 식당, 휘트니스룸, 유아놀이방, 청소년컴퓨터실, 다용도프로그램실, 숙소

B2 - 기타주차시설 : 주차장, 샤워실

실외 - 농구장/배구장, 야외파티장(BBQ), 산책로(솔래임), 야외공연장, 대운동장 / 소운동장(체육공간)

(전화:02-3677-0644)

가. 사업동기 및 실시배경

교회가 지역사회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예수의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고자 과천소망교회 전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되어 10년간 준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나. 목적 및 목표

목적 : 교회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

목표 : 문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축제프로그램 매년 신설 및 개선을 통해 주민 200%만족 목표

다. 사업실시현황

소리샘 펜플룻교실

- 시간: 매주 토요일 7:00-8:30
- 장소: 과천소망교회 본당뒷편 2층 백합회실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초등학생 환영)
- 강사: 장광식 장로
- 프로그램 소개: 현재 성인반과 아동반으로 나뉘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깊은 호흡을 통하여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꽃꽂이 교실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00-4:00
- 장소: 과천소망교회 본당 앞 나눔터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
- 강사: 김순녀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꽃을 소재로 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표현하며, 꽃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랑을 나눕니다.

차밍댄스 교실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8:00-9:00
- 장소: 로고스센터 3층 비전홀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
- 강사: 한서연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전문강사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흥겹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키우고, 차밍 워킹, 리듬감 익히기 등을 통해 바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시켜 줍니다.

새벽 요가교실


-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06:10-7:00
- 장소: 로고스 센터 3층 비전홀
- 대상: 중학생-성인
- 강사: 이예원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요가 동작들은 신체의 모든 기관을 활발하게 움직이게하며 몸과 마음을 건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클레이아트 교실(점토공예)

- 시간: 매주 주일요일 오후 1:30-3:30
- 장소: 본당 2층 백합회실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초등학생 환영)
- 강사: 문경혜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파스텔 폴리머클레이는 다양한 칼라의 색 혼합과 연출로 EQ(감성지수)개발 및 창의력, 상상력 향상을 도와주는 공작용 재료로서 완성 후 가치가 뛰어나 악세서리, 생활용품 등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시문학 강좌(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 시간: 주일 오후 1:30- 9:00-
- 장소: 로고스센터 2층
- 강사: 김기덕 시인
- 프로그램 소개: 김기덕 시인의 지도하에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며, 글 쓰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례행사로 외부 초청행사와 더불어 창작시 발표회를 갖습니다.



Flower
Arrangement

Panflute
Mission

어린이 풍물놀이 교실

-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30-6:00
- * 장소: 로고스 센터 3층 비전홀
-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
- * 강사: 김경숙 선생님
- * 프로그램 소개: 우리나라 민속놀이의 하나인 사물놀이는 신바람나는 기락으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며 연습은 주 1회 이루어 집니다.

전통문화교실

(판소리, 국악가요, 남도민요, 고법, 해금, 아쟁, 타악 등)

-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00-6:30
- * 장소: 로고스 센터 3층 비전홀
- * 대상: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교우 및 지역주민)
- * 강사: 양명희 선생님
- * 프로그램 소개: 양명희 명창의 체계적인 교육과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수강생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듬체조 교실

-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6:30-7:20
- * 장소: 로고스센터 3층 비전홀
- * 대상: 7세~초등학생
- * 강사: 홍정아 선생님
- * 프로그램 소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 중심의 운동으로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각 종목(홀라후프, 리본, 볼, 줄, 곤봉)을 감상할 것입니다.

해금교실(기초반)

-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1:30-3:00
- * 장소: 과천소망교회 분당 앞 별관 1층
-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
- * 강사: 조복래 선생님
- * 프로그램 소개: 현 한소리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상임지휘자로 한국전통음악 교육방안을 연구하시며 해금교본(해금 사람 1~2권)외 다수를 발간하신 분으로 국악계의 어른으로 이론과 실기와 교육을 수강자들에게 고품격 강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Tradition
Playing



Cooking
Training Course



Rhythmic
Gymnastics

독서토론·상담교실

-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1:30~3:00
- 장소: 본당 앞 1층 상담실
- 대상: 7세~초등학생
- 강사: 권혁구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 또는 사후 조정 또는 교정을 독서(자아 발견+토론+논술+상당)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를 대처해나가는 기술과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는데 있습니다.

윤원준 클래식기타 교실

- 시간: (토) 오후 4:00~6:00 10세~중학생 / (목) 오후 7:30~9:30 성인 (수) 오전 10:00~12:00 중급 1반 / (화) 오후 8:00~10:00 중급 2반
- 장소: 로고스센터 2층 203호 / 본당 2층 백합회실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초등학교 3학년~성인)
- 강사: 윤원준 선생님 / 유정욱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어린이뿐 아니라 처음 접하는 분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Mission Volleyball



인라인스케이트 교실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30~4:00 초급 1반 / 오후 4:00~5:30 초급 2반 / 오후 5:30~7:00 중급반
- 장소: 문원체육공원
- 대상: 7세~초등학생
- 강사: 김선주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인라인이 유산소 운동중 지방 연소효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스포츠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하체 운동에 효과가 탁월한 운동입니다.

소망농구교실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 강사: 안정균 선생님
- 프로그램 소개: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로고스 센터 운동장에서 조직적인 교육 훈련과 외부팀을 초청하여 친선 경기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ission Soccer



소망 탁구동호회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3:00~6:00
- 대상: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프로그램 소개: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위치한 탁구장은 현재 7개의 탁구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과천소망교우 뿐만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 지역 주민 등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선교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소망선교 배구단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30~7:00
- 대상: 청년, 일반부(교우 및 지역주민, 남녀, 연령 제한 없음)
- 프로그램 소개: 약 25여명의 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수도권 리그전 참가 및 수도권 내 각 지역에서 주최하는 경기에 초청받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직 프로선수가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초보 회원들도 연중 모집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선교 축구단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4:00~6:00(시간은 변동사항 있음)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
- 강사: 윤상민 감독, 김현범 코치
- 프로그램 소개: 현재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일타 교회 축구팀 및 일반 축구클럽과 연계하여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평가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유치,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교축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망산악회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2:30~
- 대상: 교우 및 지역주민(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 프로그램 소개: 매주 3부 예배 후 과천 근교의 산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벗하여 삶의 여유를 찾고,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족구회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00~
- 프로그램 소개: 신체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족구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교우들도 참여시킴으로써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usical Instrument



Mission Basketball



Alpine society



Ping-Pong Club

교육프로그램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과 연계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모집대상	정원	수 강 료
윤원준 클래식기타2권 중급반 (전문강사:윤원준)	수)15:30~15:00	누구나	15명	3개월 90,000원 -교재비별도
윤원준 클래식기타1권 초급반 (전문강사:유정옥)	목)19:30~21:20	누구나	15명	3개월 60,000원 -교재비별도
김진희의 포크기타교실 초급반 (전문강사:김진희)	토)17:00~19:00	누구나	20명	3개월 90,000원
리듬체조교실 (전문강사:홍정아)	일)18:00~19:20	7세~초등학생	15명	3개월 105,000원 (가족2인 월6만원 등본확인)
클레이아트교실(점토공예) (전문강사:문경혜)	일)13:30~15:30	7세~초등학생	20명	3개월 90,000원 -재료비포함
인라인스케이팅교실 (전문강사:김선주 9월1일~10월30일)	토)14:30~15:50	7세~초등학생	초급-10명	2개월 60,000원
	토)16:00~17:20	7세~초등학생	중급-10명	2개월 60,000원
전통의소리 해금교실 (전문강사:조복례)	일)14:00~15:50	누구나	20명	3개월 150,000원 -교재비별도
독서토론.상담교실 (전문강사:권혁구)	일)13:30~15:00	초등학생	10명	3개월 30,000원
팬플룻초급교실 (전문강사:장광식)	토)19:00~20:20	초등학생	15명	3개월 30,000원
실용뜨개교실 (전문강사:임영숙)	목)10:00~12:00	일반인	15명	3개월 30,000원 -재료비별도
성악(가곡)교실 (전문강사:윤광노)	금)14:00~15:30	일반인	25명	3개월 30,000원 -교재비별도

이외에도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캠프 및 세미나, 각종 모임과 연회등을 통해 로고스센터 건물과 주변의 푸른 자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면개방운영하고 있음

(☞문화사역 우수사례 3가지 다음페이지에 소개)

※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복지사역 (참고)



과천소망교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섬김과 나눔 그리고 봉사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2000년 복지사역 전문기구인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을 설립하여 현재 과천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주요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노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운영 : 과천시노인복지관, 큰소망경로의원, 큰소망주간보호센터, 큰소망장기요양센터, 꿈나눔과천지역아동센터 (☞ 우수시설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로고스과천요양보호사교육원, 문원어린이집
- ▶지역사회 섬김과 봉사: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회연계 섬김 프로그램
- ▶나눔과화합 실천 : 업무연계 27개기관, 자원봉사 36개기관, 자매결연 2기관, 후원기관 20개 단체

문화사역 우수사례 3가지

- ◎ 우수 교육프로그램 : 영어뮤지컬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 ◎ 우수 축제프로그램 : 행복플러스 축제
- ◎ 우수 문화프로그램 : 솔래길숲속음악회 ‘솔래음’

제 목	추진배경	사업내용	결과 및효과
꿈이 현실이 되는 로고스센터 영어뮤지컬 ‘나의라임오렌지나무’ 	강남, 분당 등 특화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교육형태인 영어 뮤지컬을 최고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저가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	2010년 4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업기간(주 2회, 4시간), 6명의 영어, 보컬, 안무, 무용 강사배정, 전문뮤지컬배우 및 예술감독, sbs예술단 감독출신의 연출 등 완벽한 스텝진을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교육 및 공연.	공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무대경험이 없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34명을 모집하고 최상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투입하여 영어, 연기, 춤 등을 교육하여 9/1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무대에 2회 유료공연을 실시하여 관객동원율 90%(1,600명)를 달성하였음. 9/25 한국정책방송ktv에서 공연전체 실황을 75분에 걸쳐 녹화방송함으로서 방송용으로도 적합한 공연품질이 검증됨. 영어 실력은 물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발표력, 사회성 등에서도 변화와 교육효과 발생

<p>가족과 함께 신나는 '행복플러스축제'</p> 	<p>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가족을 초청하여 각종체험 및 이벤트를 통한 가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p>	<p>H a p p y collection(그림전시회), 서혜정성우 초청 '속상해하지 마세요' 경기민요 공연, 버블쇼, 가훈쓰기 등 30여종의 체험마당과 먹거리, 공연 등 지역축제한마당</p>	<p>관내 어린이와 가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자녀, 부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행복을 충전 받은 지역사회 가족축제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음.</p>
<p>울창한 숲과 푸른잔디 사랑과 음악이 있는 숲속음악회 '솔래음'</p> 	<p>자연, 교육, 문화의 전당인 로고스센터에서 주민의 정서 함양,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상대적 문화 소외계층인노년층들에게도 음악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p>	<p>성우 서혜정, 기타 연주자 윤원준, 소프라노 심진영, 가수 방애리, 홍종민 재즈밴드, 테너 김태희, 필그림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과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열린음악회</p>	<p>1,000여명의 지역주민과 과천시 시장,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가 함께 하여 성별, 나이, 계층을 떠나 음악과 더불어 화합의 장이 되었음. 연례 행사로 발돋움하여 과천시의 공연문화 대표브랜드로 성장 목표</p>

2010년 하반기 중점 특별문화사역 :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살롬나비토마토<토요일마다토론>시민강좌 CTS기독교TV 방영

일시: 2010년 10월-11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장소: 과천소망교회 로고스센터 3층 로고스홀 (02-3677-0644)

내용

1. 10/09 소통의 기쁨과 행복 강사: 송길원 박사(하이패밀리 대표)
2. 10/16 부부간의 소통 강사: 김향숙 박사(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평생교육원 원장)
3. 10/23 목회자와 평신도의 소통 강사: 손봉호 박사(전 동덕여대 총장)

- | | |
|----------------------|------------------------------|
| 4. 10/30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 | 강사: 박봉배 박사(전 목원대 총장) |
| 5. 11/06 T.G.I.F. 소통 | 강사: 최윤식 박사(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
| 6. 11/13 예수의 소통 | 강사: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
| 7. 11/20 지성과 영성의 소통 |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
| 8. 11/27 소통의 신학 | 강사: 김영한 교수(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

♣ 살롬나비 포럼

일시: 2010년 10월-2011년 6월 (매월 첫 금요일 오전7시)

장소: 과천소망교회 로고스센터 3층 로고스홀(02-3677-0644)

내용

- | | |
|---------------------|------------------------------|
| 1. 10/01 문화변혁과 기독교 | 강사: 김영한 교수(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
| 2. 11/05 선진사회 시민정신 | 강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
| 3. 12/03 선진시민의 법의식 | 강사: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
| 4. 01/07 선진사회와 역사의식 | 강사: 민경배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살롬나비(Shalom Nabi)!

문제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고와 책임윤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이상을 꿈꾸고 자기부터 개혁하는 나비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겸허한 나비의 행동은 효과로 나타난다. 나비효과는 카오스이론에 서처럼 숲 속의 나비의 떨림이 대양에 거대한 허리케인을 가져온다는 은유를 나타내며,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행동(나비란 히브리어로는 예언자라는 뜻)을 은유하기도 한다. 미미한 개인의 행동이 신앙 안에서 실천의 연대로 결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연합시키는 능력으로 거대한 사회변혁 효과가 나타난다는 은유를 담고 있다. 나비 행동의 시작은 자기 개혁이며, 그 확산은 시민운동이며, 그 목표는 온 누리의 살롬이다. 이 살롬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비행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편적으로나마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현실사회에 참여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까지!!

『해피월드 해피뱅크』 사업소개

(2010. 10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기관사업소개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39번지 석우빌딩 4층
전 화	(031) 924 - 8815~6 ,(070) 7618-1033
팩 스	(031) 924 - 8816
홈 페이지	www.happyworld.asia (재단) www.happybank.asia (해피뱅크사업부)
전시 영역	지역사회와 교회복지
사 업 명	『해피월드 해피뱅크』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

1. 기관개요

가.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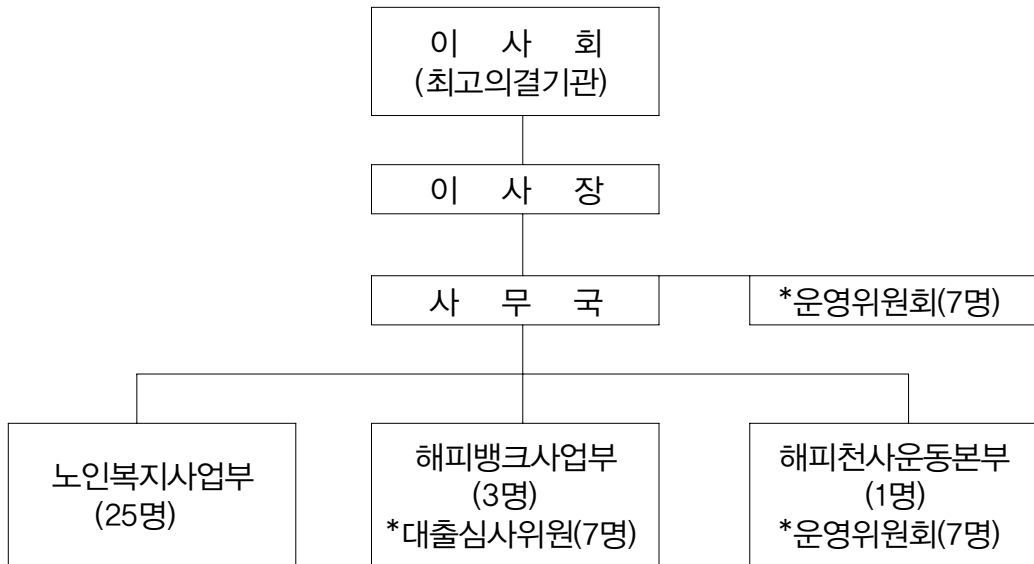
나눔, 섬김, 봉사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지역사회 및 국가, 나아가 인류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연 혁

- 2010.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 지원 영역확대 실시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천한 영세상인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5억원]
- 2010. 4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 계약체결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18억원]
- 2010. 2월 고양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탁
- 2009. 6월 광성노인요양홈(노인의료복지시설)개설 및 운영
- 2009. 4월 휴면예금관리재단(현: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지원사업 계약체결[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15억원]
- 2009. 3월 고양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탁

- 2009. 2월 해피월드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08. 3월 고양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탁
- 2008. 2월 광성노인복지센터 개원(재가복지사업)
- 2007.10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득함
- 2007.10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0억원 자산출연

다. 조 직



2. 사업목적 및 개요

가. 사업동기 및 실시배경

해피뱅크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16 소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우리 사회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200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약 20억원 자산출연)을 설립하였고, 동 재단의 한 사업분야로 저소득·신용취약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교회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및 삶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공홀사역 일환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단순히 일시적인 소액의 금전적 도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생업을 통한 자활 기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실질적인 도움과 해당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회자체적인 후원금에 의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한 마이크로크레딧실적을 인정받아 『미소금융중앙재단(전,소액서민 금융재단)』의 휴면예금기금 지원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도에 82개업체/1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23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나. 사업목적 및 목표

해피뱅크사업은 『해피월드복지재단』의 설립취지 및 정관에 의거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특징은 제도 금융권은 물론 어떤 기관에서도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 신용관리상 흠이 있는자(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국세체납, 부도, 연체 등)들에게 자활의지가 있고 운영 중인 사업 또는 예정사업의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자의 자활 의지, 사업경험, 신청인의 각자 개별적인 상황 등을 토대로 한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사업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점이 기존 금융권에서의 담보 중심의 형식적 및 시스템적으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점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현행 제도 금융권에서는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한번 신용관리상 흠이 발생하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로 재기의 의욕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 저희 해피뱅크에서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데 주된 목적과 동 제도의 핵심 취지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쏟고

있음. 우리 복지재단은 이러한 소중한 사명을 일찍이 발견하여 동 사업을 추진 하던 중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미소금융제도(2009. 9월시행)로 확산되어 펍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취지와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점이 현실인바, 우리재단은 해피뱅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핵심 포인트를 충분히 파악하는 등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백분 발휘하여 마 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구원에 앞장서고자 한다.

다. 사업실시 현황

1) 재단후원금에 의한 지원사업 (2010.9월말 기준)

구 분	2007 ~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지 원 자	16명	9명	7명	32명
지원금액	1억2,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	2억원

2) 휴면예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2010.9월말 기준)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
업 체 수	82개(82건)	44개(59건)	시행예정	126개(141건)
지 원 액	15억원	10억5천만원 (배정액:23억원 중)	“	25억5천만원

* 상기 지원현황은 “휴면예금기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교부받아 지원한 실적임

◆ 업종별 지원현황(2010.9월말 기준)

(단위:개, 억원)

구 분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출판업	제조업	기 타	계
업 체 수	37	36	28	3	12	10	126
지 원 액	7.4	7.4	5.3	0.6	2.9	1.9	25.5

3. 사업내용

가. 사업명: 『해피월드 해피뱅크』 마이크로크레딧사업

나. 지원대상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신청인이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나 자활의지가 강하고 사업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주 대상자이며 법인사업자와 일부업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업, 사치향락 및 오락업 등)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이 있다.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지원: 서울시가 추천한 영세상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고양시, 파주시 거주자중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

다. 지원한도

-창업지원사업: 동일 가구당 최고 4,000만원으로 하되, 최초 신청자는 최고 2,000만원범위내로 제한하며 기 지원한 업체 중 신용도 및 사업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하여 추가지원에 의한 최고 4,000만원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전통시장 지원사업: 업체당 최고 3,000만원 범위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라.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창업지원자금: 대출기간은 지원일로부터 4년간이며, 예비창업자는 6개월 거치 후 42개월간 원금 및 이자균등분할상환, 기존사업자는 3개월 거치후 45개월간 원금 및 이자균등분할 상환 조건(거치기간중에는 이지만 납입), 금리는 연 7.5% 적용-서울시 전통시장 지원자금: 6개월거치 42개월분할상환, 금리는 연 4.0% 적용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자금: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별 결정

마. 신청 및 심사절차

-창업지원사업: 우선 관심이 있는자는 ①전화를 통한 기초상담 ②신청절차 안내 ③신청서류 접수(등기우편) ④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⑤현장실사 일정통지 ⑥현장실사 ⑦현장

실사 결과 및 평가 ⑧대출선정심사위원회 회부 ⑨선정심사 ⑩선정심사 결과 통지 및 약정서류 안내 ⑪지원약정 및 창업교육 ⑫자금집행 ⑬지원금사후관리

-전통시장 지원사업: 서울시와 해당시장 상인회장이 추천한 사업자로서 현장실사 및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지원결정==> 지원약정 및 자금집행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재단 사무국에서 접수==> 본인 면담 및 운영위원회심사후 지원결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금집행

4. 사업효과

최근 우리사회의 현실은 미취업자, 실직자, 사업실패자, 이혼 및 가정 붕괴 등의 사유로 한번 취약계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 온갖 재기의 노력을 기울여도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그들이 스스로 창업을 통해 자활을 시도 해봐도 대부분의 경우 신용상태에 흠결이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어떤 지원기관에도 접근이 불가능한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로 인하여 각종 사회 문제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해피월드복지재단 해피뱅크(마이크로크

레딧)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원신청자의견

해피월드 해피뱅크

32. 동 제도와 관련, 저희 재단에 말하고 싶은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저소득, 저신용자, 소외계층에 그야말로 희망과 생명의 빛을 주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생명의 빛이요,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간의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자활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며, 부디,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어 저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 8 .

신청인: 김 은 상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면서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이 실질적인 창업과정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적이 많았습니다. 미소금융이나 마이크로크레딧 등은 그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지만, 제가 받은 도움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 나뉘드릴 수 있게 될 날이 꼭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

신청인: 이 기 훈

이 기 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위와와 소망은 믿었으면 합니다
작부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15

신청인: 진 혜 숙

진 혜 숙

본 제도는, 어렵고, 백업고, 돈없는, 대출받기 어려운
압박한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너무나 현상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0. 8. 6

신청인: 이 경 태

이 경 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부끄러워
해피월드 해피뱅크가 존재함으로 새 인생을
만나고 있는 부디 자라꽃이 인생 밝아주세요
말은 어렵지만 부끄러움 위해
한번 써서 기록 바랍니다
신청인: *이 경 태*
배 남 환

32. 동 제도와 관련, 저희 재단에 말하고 싶은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막다른 골목에서 갑자기 밖으로 문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머리가 ثق라 일어날수 없던 파산자임벌인 제게 주신 해바람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 또다른 빛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앞에 반드시 승리
2010. 8. 6

신청인: 이 신숙 (인)

이런 재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만났달아 안다감습니다. 사실 모르는 한 사람들이 저제의 가장큰 부인이 되고 은혜끝에서 대축이 박힌것은 목감습니다. 낮은 사람이 약약이면 좋겠습니다.
2010. 7. 21

신청인: 김 승주 (인)

진정한 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좋은 취지의 재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현재의 삶이 전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어 주십시오.

2010. 7. 28

신청인: 김 용성 (인)

재도화된 저의 금융지원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곤란한 영세사업자에게는 해피월드 해피뱅크 재단은 꼭 필요한 정책자금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바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2010. 4. 28.

신청인: 오 윤숙 (인)

32. 동 제도와 관련, 저희 재단에 말하고 싶은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만약 저희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 이니 앞으로는 해피월드 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해피월드 재재단은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과 꿈입니다. 저희 가족의 가족들이 영원히 후회하고 싶지않고, 변치않는 무렵이나 우리 바깥에서 저희 가족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0. 5. 16

신청인: 김 윤희 (인)

세상에 놀랄것이고 공을 갖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나 관습까지 철저적 손실은 큰 공과 재능을 갖고도 공을 걸차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저희 재역과 상환없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없는 노력 이들을 건진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믿어겠습니다.
2010. 7. 20

신청인: 이 응자 (인)

지 원 사 례

.....

해피월드 해피뱅크

<사례 1>

- 업 체 명: KJ파티이벤트 [대표자: 정 0 0(여/34세)]
- 업 종: 서비스, 소매(이벤트, 풍선, 장식, 파티용품)
-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지원금액: 2,000만원(창업자금)
- 지원일자: 2009. 6. 17

=====

-상기 창업자는 결혼 6년차로 자녀(아들:9살, 딸:5살)를 두고 있는 주부이며 남편은 2007.12월 뇌출혈 수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현재 주기적인 통원 치료중으로 본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본인은 1999년도부터 한국투자증권에서 7년간 근무 중 업무상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2006.4월에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었고 그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신청 후 2007.6월에 면책을 받은바 있다.

-남편은 뇌수술 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가장으로서 역할은 기대할 수 없었고 업친데 덩친격으로 2007.12월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은 남편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친정 부모님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한편,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는 마땅치 않았고 경제력이 없는 부친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자녀를 포함한 다섯 식구와 남편 병원 수술비,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 이었다.

-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찾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를 찾아보니 풍선장식이

적성에 맞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풍선자격증(1급, 2급), 풍선공예지도사 자격증, 레크FP이션 지도자(돌잔치 사회자: 3급)를 취득하여 다행히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었다.

-남편의 경제력 상실에 따라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가정을 꾸려가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아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본인 소득으로 생계의 불안을 느끼고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없을까 늘 고민하던 중 그럴때 마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러한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막상 생계형 창업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창업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다방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으나, 본인의 파산·면책 때문에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고 실망과 한숨만 더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마침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성공가능성이 큰 생계형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전해 듣고 “해피월드복지재단”에 창업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꼼꼼한 사업계획을 인정받았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천금 같은 2,000만원을 지원받아 창업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업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어 월 400만원~500만원의 수익 실현으로 우리가족의 생계는 물론 자활의 기틀을 더욱 더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우리가족의 생명줄과 같은 해피월드복지재단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성공하여 본인의 처지와 같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꼭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본다.

<사례 2>

- 업 체 명: 하 랑 [대표자: 이 0 0(여/37세)]
- 업 종: 소매(의류, 캐주얼 및 아동복, 숙녀복 등)
- 사업장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 지원금액: 2,000만원(창업자금)
- 지원일자: 2009. 6. 17

=====

-상기 창업자는 결혼 10년차로 자녀(아들:9살, 딸:5살)를 슬하에 두고 있는 전업 주부였으며 남편이 사업실패에 따른 부도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은 2007.2월 파산면책을 받았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제도 금융권은 물론 우리사회 어디에서도 신용 불량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좌절과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처럼 가장의 경제력 상실에 따라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심한 갈등과 불화 등으로 동거가 어렵게 되자 남편은 가정을 포기하고 급기야 가출로 주거가 부정하여 단란한 가정의 최소한의 행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은 지원 받고 있었으나, 불안한 생계 및 어려운 경제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창업자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서 심한 갈등과 고초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은 살려야 한다는 강한 결단을 하고 2008.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박스 제조업체인 (주)영일수출포장에서 단순노무직(파트타임)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해보았으나, 수입은 겨우 월평균 44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가정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회한 및 자괴감에 빠져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곤 하였으며 그럴때

마다 자녀들의 장래와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창업을 통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생계형 창업을 위해 제도 금융권은 물론 정부지원 창업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다방면으로 길을 찾아보았으나, 남편의 파산 면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고 실망과 한숨만 더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마침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성공가능성이 큰 생계형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해피월드복지재단”에 창업지원 신청을 하여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이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희망만 가지고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렇게 힘겹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점포 인테리어 및 초기 운영자금 조달이 급선무였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점포 인테리어는 중고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으로 본인이 직접 작업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초기 상품구입도 최대한 재고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운영자금으로 힘겨운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는 점차 사업이 안정화 되어 월 수익이 300만원~ 400만원가량 시현되고 있어 가정도 점차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가출한 남편도 귀가하여 행복했던 지난날을 되찾게 되어 “해피월드복지재단”이 우리 가정의 수호천사가 되고 있다.

<사례 3>

- 업 체 명: 천안중기 [대표자: 안 0 0(남/49세)]
- 업 종: 건설(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 주 소 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사업장:(주)현대모비스천안물류센터]
- 지원금액: 2,000만원(창업자금)
- 지원일자: 2009. 6. 17

=====

-상기 창업자는 부인과 자녀2 두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한라건설에서 10여년간 재직 후 퇴직하여 모친과 함께 부평에서 뼈다귀 해장국 음식점을 약 3년간 운영 했었는데 동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면책을 받았다.

-그동안 평온했던 가정은 이러한 여파로 급기야 이혼 상태까지 이르렀고 한동안 별거를 하는 등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부인 또한 가정 생계를 위해 피치 못하게 사용했던 카드대금과 금융권부채 및 보증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현재 상환 중에 있으며 가정은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창업자는 한순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일을 찾던 중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옛 직장생활을 하면서 맺어진 직장동료로부터 지게차 지입을 권유 받았고 만약 동 지게차를 운영 할 경우 매월 지입료 450만원중 교대인원 인건비 약 160만원을 제외한 약 290만원 가량의 순수입을 꼬박 꼬박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은 해보았으나, 막상 지입차 구입에 따른 소요자금 약 3,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동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유통의 길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본인의 파산 및 면책사실 때문에 금융기관은 물론 창업지원기관 어디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기대 할 수 없었고 실망과 한숨만 더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마침,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성공가능성이 큰 생계형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해피월드복지재

단”에 창업지원 신청을 하여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찼었다. 나머지 부족자금은 친지로부터 융통하여 창업에 성공하였고 이제는 안정된 수입으로 지난날 행복했었던 가정을 되찾게 되어 “해피월드복지재단”이 우리 가정의 행복전도사 이기도 하다.

서민(소상공인)금융제도

해피월드 해피뱅크

서민금융상품비교표

(2010.9월말 기준)

구 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기관	미소금융 각 지점	농,수,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저축은행 등	16개 은행
재 원	미소금융자금 (기부금,휴면예금 등)	서민금융회사자금 *보증부대출(자원: 서민금융회사 출연 및 정부재정)	은행자금
대출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이하인자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자
자금 용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 사업자	생계자금, 사업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사업자금 등
대출 한도	창업자금:5,000만원 운영자금:1,000만원 시설개선:1,000만원 무등록사업자:500만원	긴급생계:1,000만원 사업운영:2,000만원 창업자금:5,000만원	2,000만원
대출 금리	연 4.5%이내	연 8~13%	연 11~14% 예상

소상공인지원제도

(2010. 8월기준)

- 중소기업청창업 및 경영개선자금[3개월이상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취급 : 1588-5302]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4.08%), 성공창업교육(80시간, 별건)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우선자금(지역업컨설팅 12시간 교육, 창업전 20시간, 서울교육불인정)
 - 스마트샵 지원자금(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신청,1억원이하, 사전심사후 추천 기업은행)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자금[3개월미만 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취급:1588-5302]

 - 소상공인창업특별보증자금(3,000만원이하, 금리보전 2%, 5년차 금리보전 없음)
=> CB 5등급이상 3,000만원, 6~7등급 2,000만원, 8등급이하 1,500만원 차등적용
 -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보증금(5,000만원, 금리보전 1.5%, 1년치 월세 차감계산)
 - 서울희망드림뱅크(2,000만원, 금리보전 3%, 법인불가, 3개월미만은 서울교육필, 농협중앙회)
 - 기술기반소자본청년창업자금(5,000만원, 금리보전1.5%, 5년차 금리보전 없음)
 - 1년거치4년(5년차 보전없음)과 1년거치 3년상환방식 중 택일(보증료 연0.9% 5년치선납)

- 서울신용보증재단 [3개월이상 기업, 서울시 자금심사: 1588-6119]

 - 준비된 창업지원(5,000만원, 5단계패키지창업교육, SBA성공창업교육)
 - 저신용자, 미등록 사업자(새마을금고, 신협: 500만원이하)
 - 서울시 경영개선자금(3개월이상 경과된 사업자)
 - 햇살론(사업자등록증, 12~13%,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 여성가장창업지원제도 [여성경제인연합회:(02) 369-0923]
-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이어야 하고, 경영개선자금은 사업자등록후 1년경과
- 사업장 임차지원제도[근로복지공단:1588-0075, 02-2670-0592, 서울본부2230-9770]

 - 고용보험수혜자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
- 지역업컨설팅[042-363-7751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s.or.kr), con.sosang.kr]

 - 창업 3일, 경영 5일이내, 예비창업자(창업교육, 5단계, e-러닝5과목 수강필요)
- 창업교육신청: www.seoulsbdc.or.kr(인터넷 신청, 현장교육, 12시간이상)

* 자료제공: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황 및 발전방안

양혜원(총신대학교)

김희수(한국성서대학교)

I. 서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그의 제자된 성도들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힘씀으로써 제자도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칼빈은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물 질적 필요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손병덕, 2004: 163) 교회와 기독교인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후기에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는 바로 이러한 구제와 사회봉사에서 비롯되었다. 구한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독교 외원단체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들을 위하여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우고 자선사업과 구빈활동 중심의 사회봉사를 주도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이 지속되어서 199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사회복지법인 중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6%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보고서」에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종교별 운영주체를 분류한 결과에서도 기독교가 전체의 45%를 차지하여, 각각 12%로 나타난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윤실, 2010).

사회적 섬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기여해 온 기독교는 그간 양적 규모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성장세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신과 비난에 직면해있다. 상기한 기윤실(2010)의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신뢰도 증가가 있었지만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2~3년 전 대비 한국교회 신뢰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69.4%,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이 4%인 반면,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은 무려 26.6%로 나타나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예장합동총회 교육개발원에서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신학생들조차 25.8%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창민, 2009. 11. 16).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난과 불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그간 이론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현신한 바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찬(2007: 25)은 한국 교회가 비축한 재원에 대한 사회의 환원이 미흡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평균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전체 예산의 10.6%로 나타났다(이만식, 2007). 그런데 미국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평균 15%, 캐나다교회는 평균 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윤만길, 2009 : 45에서 재인용),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비용은 미국교회의 약 70%, 캐나다교회의 1/2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윤실(2010)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중단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와 사회봉사에 더욱 힘써야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사회구성체로서 신앙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행의 차원에서도 구제와 사회봉사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는 정상원(2009 : 2)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수많은 평신도들을 헌신된 주의 제자들로 변화시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최근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민족을 치유하는 섬김공동체,”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공동체,”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연합공동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비전공동체,” “사회를 변혁하는 정감공동체”의

5대 비전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구제와 사회봉사에 힘을 기울여왔다. 구제와 사회봉사 사역을 본격화하고자 1992년 기존의 구제선교분과위원회를 이웃사랑선교부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에는 사랑의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사랑의복지관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구호사역에 헌신하여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올해 아이티 지진 구호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바 있다. 특별히 올해는 전 교회 차원에서 사회적 섬김을 더욱 강화하고자 사랑의아웃리치2010 사역을 시작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선교지 후원물품 기증, 전체 목양팀이 참여하는 다양한 농어촌 봉사 사역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춰버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앞으로 사랑의교회가 그 동안 한국교회에 끼쳐온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제와 사회봉사, 즉 복지사역에 있어서 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구조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지사역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관계자들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교역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회사회복지사업

1)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사회복지를 접목시킨 용어로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용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손용철, 2002), 그 둘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유창춘, 2002; 양혜원, 2008).

양혜원(2008)은 기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혹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조직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의 미시적 접근에 제한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 접근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교회라는 장이 환경을 이루고,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미시적이고 실천적 차원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교회사회사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기독교사회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협의의 개념인 교회사회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전문적 서비스라기보다는 자선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사회복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와 같이 미시적, 실천적 접근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양혜원, 2008: 1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혹은 법인의 형태를 통해 수행하는 실천적인 사회복지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회사회복지사업’을, 개 교회의 이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복지사업’¹⁷⁾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성경적 근거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성경적 근거는 산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이념적 및 실천적 내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20c 후반 이후 등장한 용어이지만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를 가진 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한다(박종삼 외, 2002: 25-28)는 의미에 근거하여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해 곳곳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율법에서 사회복지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으며(양혜원, 2008), 사회복지 실천이 기독교인의 본질적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지찬, 2007). 구약에

17) 설문조사에서는 복지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나타난 사회복지의 실천적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약자, 즉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노예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다(최완석, 2004: 14). 출애굽기 22:21-24에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명기 14:28-29에서는 나그네와 고아 및 과부를 배불리 먹이도록 명하고 있다. 또한 레위기 19:9-10, 신명기 24:19-21에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이나 나무로부터 얻은 소산물을 남겨두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21:2-11에 노예에게 자유를 줄 것과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며 결혼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2:25-27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고 있다(양혜원, 2008). 또한 출애굽기 23:10-13, 레위기 25장, 신명기 15:1-11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유와 경제권의 회복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와 같은 선지사에서 선지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층의 무관심과 불의를 고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최완석, 2004: 19-20).

이렇듯 구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이념적 및 실천적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진다. 예수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37-39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모세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이 강조된 것(전광현 외: 58)으로 오늘날의 사회복지활동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할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을 표현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행위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보기로 가난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 곤궁한 자들을 돕거나 돌아보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다(박신경, 2001, 최완석, 2004: 21에서 재인용). 초대교회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위하여 디아코노스(diakonos, 집사)제도를 마련하였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디아코노스를 택하여 구제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사회봉사를 기도와 말씀전파 활동으로부터 구별하여 전문화시킨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교회 내 사회복지전문가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양혜원, 2008).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실천적 내용들은 먼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서 곳곳에

서 드러난다. 예수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할 것(마 6:1-4), 구하는 자의 청하는 대로 주며 거절하지 말 것(마 5:42),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마 5:7)을 가르치고 있으며 마태복음 19:16-21에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누가복음 10:25-37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곤궁에 처한 자를 도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임승철, 2002: 22-24). 마태복음 25:31-46에서는 주리고 목 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이웃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양혜원, 2008) 즉,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몸소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어졌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2:44-47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9-10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의 계명을 언급하며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강조하였다. 갈라디아서 6:2에서는 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4:12에서는 봉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임을, 에베소서 4:32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길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갈 2:9-10)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약 1:27)을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돌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구제와 섬김, 봉사는 기독교인과 교회공동체가 수행해야할 본질적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늘날 사회복지실천은 교회가 감당해야할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3) 현황

우리나라 교회사회복지사업은 19c말로부터 21c초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기독교와 교회는 사회복지영역에

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윤실에서 발간한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가장 최근의 주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월 발간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 자료를 통해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에서 기독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1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45%를, 지역아동센터 3,013개 중 53.13%인 1,601개를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해외원조단체 역시 총 47개 중 기독교가 17개, 36%를 차지하였다(기윤실, 2010).

한편,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업 관련 현황의 또 다른 측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비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1990년대에 조사된 것으로 현재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노치준(2000)은 1990년대에 조사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인식 및 당위론의 수준에서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선교원,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등 아동복지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공부방 및 장학사업 등 청소년복지사업, 그리고 노인대학, 경로잔치 등 노인복지사업의 순으로 많이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규(2007) 역시 1990년대 조사 자료들을 통해 교역자들의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을 보고하였는데 응답자의 93.7%가 사회복지사업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교인들의 관심정도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별도 조직의 마련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82.5%)가 예산의 10% 미만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1999)이 기독교 7개 교단 소속 1,531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목회자의 85.9%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수행은 저조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조사대상 교회의 78.6%가 10%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아동복지사업이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회는 전체의 35.6%로 1/3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김창호(2001)는 서울 및 강남구 소재 104개 교회의 교역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88.9%가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실제적인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 혹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29.0%에 불과하여 다른 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식과 실제 참여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복지 수행의 형태로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외 후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32.5%, 생활용품 지원하는 경우와 교회 건물 개방 등 시설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각각 16.2%,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14.5%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현황 자료로는 이만식(2007)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13개 교단의 680개 교회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교회 전체 예산의 평균 10.6%가 사회봉사 및 구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체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27.8%, 저조하다는 응답이 72.2%이고, 소속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정도에 대해서도 31.5%가 활발한 편, 68.5%가 저조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응답한 교역자가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3%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였고, 교회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유급직원이 있는 비율은 14.1%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각 연구마다 세부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참여도는 인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전체 재정의 10% 수준의 예산 배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사업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상자를 위한 사업을 주로 전개하거나 현금이나 현물 제공, 시설제공, 인력제공 등 비교적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내용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2. 교회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교회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역자 관련 변인, 교회 관련 변인, 그리고 지역사회관련 변인으로 교회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관련 변인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역자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교역자의 의식이나 지향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김동배, 1994; 민경원, 1999; 이성일, 1999). 교회가 가진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시설 및 재정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역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이외에 사회복지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김동배, 1994; 유장춘, 2003; 강기정·변미하이명완·최광수 2004), 설교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다루는 정도(성규탁, 1992; 강기정 외, 2004)와 같은 요인들이 관련 변인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교역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교역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을 때 그만큼 설교에서 사회복지관련 내용을 다루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김청호(2001)의 연구에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이유를 확인하였을 때 교역자의 적극적 태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 관련 변인으로는 교인들의 인식 및 지지 정도(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원, 1990; 정성채, 1998; 민경원, 1999; 유장춘, 2003), 전문인력이나 조직(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원, 1990; 정성채, 1998), 예산이나 시설(김동배, 1994; 서선희, 1997; 유장춘, 2003)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즉, 교역자의 인식 뿐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질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고 교회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회사회복지사업이 활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조직이 있을 때 교회 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관리와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련 변인으로는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유장춘, 2003; 강기정 외, 2004), 교회의 소재지(김미숙 외, 1999)가 언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강기정 외(2004)의 연구에서는 교회가 소속한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할수록 사회복지사업에 배정되는 예산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미숙 외(1999)는 농어촌교회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농어촌교회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교회에 그만큼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 단위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지역사회 환경의 열악한 정도가 교역자 및 교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역자 및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이러한 인식을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들, 즉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시설, 지역사회의 요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회 내의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며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라

는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역자와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사회복지 관련 환경의 변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전개과정은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또한 교회사회복지의 대상이 교회 내외부의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웃의 어떠한 어려움을 돌보아야하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하는 일, 그러한 이웃들을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공공복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주요한 변화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장기간의 간병 및 요양의 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및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514만명의 8.8% 수준인 약 45만3천명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이 중 25만1천명이 등급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74.4%인 18만 7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수천, 2009. 7. 3).

2006년 3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빈곤에 처해 있거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선정 기준은 2010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재산기준은 13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007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27,759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24,208건에 대하여 총 303억 811만원이 집행되었다(정원오·김진우·신영석, 2008).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료 지원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인 가구까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 4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그리고 중고교생 학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 재학생들에게 일자리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근로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능력을 키우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 중에는 가입자 저축액과 시비 및 민간후원금을 1:1로 매칭하여, 저소득 가정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과 취업·창업·주택자금 마련 등 생산적 목적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본형성을 지원하는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3,000가구, 1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정언성, 2009. 3. 31).

또한 장애아동 수당이나 장애인 연금, 그리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있어서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보조기 등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용 등 사회복지 관련하여 다양한 양적, 질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9월 발표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의 증가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7.9%를 차지하였다(서육진, 2010. 9. 2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나 그 규모, 그리고 내용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미비했던 시절에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던 것과는 확실하게 다른 내용으로 교회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사랑의교회 복지사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사랑의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강남은평교회를 세워 1978년 7월 23일 9명의 성도가 모여 개척예배를 드린 이후,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훈련에 전념하면서 30여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2004년 옥한흠 목사가 정년을 5년 앞두고 조기 은퇴하면서 제2대 오정현 목사가 리더십을 이어받았고, 지난 200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H(Healing Our Nation, 민족을 치유하는 섬김공동체), E(Equipping the Disciples,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공동체), A(Assisting the Global Christian Network,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연합공동체), R(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비전공동체), T(Transforming Society & Culture, 사회를 변혁하는 정감공동체)의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설립초기부터 복지사역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복지사역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일선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중심점인 사랑의복지재단, 교회 중심 복지사역의 주축인 이웃사랑 선교부, 의료복지분야 전문사역인 호스피스 사역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¹⁸⁾

1)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발전과정

1978년 제1대 옥한흠 목사가 강남은평교회로 개척

1981년 사랑의교회로 개칭

1992년 구제선교분과위원회를 이웃사랑선교부로 개편, 호스피스 사역 시작

1996년 사랑의복지재단 설립

1997년 사랑의교회복지관 개관, 의료선교회 설립

1998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개소

2004년 제2대 오정현 목사 취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구제현금, 단전·단수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운동

2006년 인도네시아 긴급구호팀 파견, 정감운동(정직과 감사 운동) 출범, 북한사랑
의선교회 설립

2007년 제주도 수재민들에게 구호물품 전달

2008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한국교회봉사단 발족

2010년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희망연대 통합) 발족, 오정
현목사(공동대표) 옥한흠목사(상임고문),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통해 아이티
지진 구호 동참, 사랑의아웃리치2010 사역 전개

2) 사랑의복지재단

18) 사랑의교회는 상기한 부서 이외에도 북한사랑의선교부, 장애인선교부, 지역사회선교부, 의료선교회 등 여러 부서들을 통하여 탈북자나 장애인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복지재단, 이웃사랑선교부, 호스피스 등이 본 교회의 5대 사역 중 치료(healing) 사역에 속해 있는 반면, 그 외 부서들은 선교와 복지사역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면서 선교(assisting) 혹은 변혁(transforming) 사역에 속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치료 사역에 속한 순수 복지사역 부서들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연혁

1996년 복지재단 설립 인가

1997년 사랑의복지관 개관

1998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 조직

이사장(오정현 목사), 상임이사 1명, 법인사무국 직원 2명

(3) 산하기관

① 법인운영시설

사랑의복지관, 사랑의그룹홈, 사랑의가족(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시설), 하늘 동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단기보호센터, 사랑의일터(장애인 보호작업장),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

② 법인위탁시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어린이집, 은빛마을(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서초열린세상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4) 주요 사업

① 사랑의가족봉사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함으로써 가족의 사랑을 키우고 섬김의 즐거움을 나누는 가족단위 사회봉사 사역으로 2007년 활동을 시작하여 매년 약 15가족이 월 1회 참여함

② 이웃사랑서포터즈

중소형교회, 미자립교회의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은 교회들이 인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아서 교회부흥과 교회 건강성 회복을 꾀하는 사역으로, 2008년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교육치료, 교회학교 설립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미자립 청소년 쉼터와 장애인 복지, 재활, 교육, 선교를 하는 교회 혹은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중소형 교회로 대상을 확대, 실시함

③ 사회봉사훈련원

자원봉사 전문교육 (1회 2시간 6주 과정, 봉사실습, 봉사캠프) 프로그램이나 2007년 1회 실시 이후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3) 이웃사랑선교부

(1) 주요 연혁

- 1992년 구제선교분과위원회로부터 이웃사랑선교부로 개편 발족, 소년소녀가장 후원단체 작은사랑후원회(현 작은사랑 큰기쁨) 설립
- 1993년 노인·부랑인 대상 봉사선교단체 행복한 모임 개설, 난곡에 지역사회복지센터 사랑의집 개원
- 1995년 에스더미용선교회 설립
- 1996년 소년원선교회, 병원선교회 설립
- 1997년 의료선교회 설립, 이웃사랑선교 사역 소식지 이웃사랑지 발간
- 1999년 의료선교회 전문인 선교사역으로 독립
- 2000년 이웃사랑지를 이웃이야기로 개칭 연 2회 정기 발간
- 2002년 소년원선교회에 학원사역 추가하고 파워비전으로 확대 개편
- 2004년 사회봉사대학 1기 시작, 빈곤한 독거노인 방문지원 사역 선한사마리아인 설립, 사랑의입양 설립
- 2005년 북한사랑의선교회 설립, 사랑의나눔 설립
- 2006년 사랑의집짓기 참여, 강원도 수해지역 집수리 봉사활동
- 2007년 제주도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과 연합 태안기름유출사고현장 봉사활동
- 2008년 북한사랑의선교회 독립
- 2010년 사랑의119 정선지역 봉사활동

(2) 조직

담당목사 2명, 실장 1명, 간사 3명, 본부 운영위원회, 10개 사역조직

(3) 사역 현황

〈표 1〉 이웃사랑선교부 사역 현황

사역	시작 시기	사역내용	봉사자	예산실적
본부사역	1992년 1월	- 9개 부서사역 행정지원 - 교우생활지원, 대외(기관, 개인)생활지원		755,590,830
작은사랑 큰기쁨	1992년 12월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청소년 후원사역(310여 가정, 600여명) - 일대일 결연방문(신앙, 정서, 학습지도) - 학업(학원, 장학) 및 생활비 지원 - 능력개발 및 사회성 강화활동	400여명	897,253,940
행복한 모임	1993년 3월	- 소외노인 초청예배 및 동아리모임(260여명) - 집회(주회) 통한 영적 돌봄 - 정서, 물질, 건강 지원	90여명	66,007,990
파워비전	1996년 1월	- 비행청소년 선도 및 예방사역 - 소년원, 고교 방문사역 - 찬양, 일대일 성경공부, 절기행사 - 상담, 선도집회 등	50여명	39,550,905
에스더 미용선교회	1996년 1월	- 이미용봉사를 통한 소외지역 선교사역 - 봉사처 45여곳에 4-5명으로 조직된 팀사역 - 신입봉사자 미용아카데미 연회 30여명 훈련	140여명	108,122,125
루디아모임	개척초기	- 교회내 각종 행사 봉사 - 시립아동병원, 탈북청소년학교, 노인요양원 등 다양한 대외 봉사 - 여성봉사자로 구성	130여명	28,453,870
사랑의입양	2004년 7월	- 교회와 사회의 입양운동 선도 - 국내입양, 공개입양, 건강한 성도가정 입양을 목표로 함 - 입양가정 발굴 및 지원, 입양상담 및 연결, 교회내 입양홍보 - 보육원 봉사	20여 입양가정 보육원 봉사자 100여명	46,248,755
선한 사마리아인	2004년 7월	- 독거노인 방문사역(140여명) - 말벗, 청소, 세탁, 반찬, 목욕, 나들이, 행정편의, 병원동행 등 - 독거노인과 다락방, 일대일 연계 - 정가지원, 절기선물, 의료 및 경조사비 지원(섬김비용 다락방 보조)	210여 다락방	228,640,880
사랑의나눔	2005년 1월	- 성경적인 나눔문화에 조성을 위한 사역 - 성도들의 기증품을 어려운 이웃, 미자립교회, 농어촌, 북한, 해외선 교지 등에 기증 - 온라인/오프라인 나눔센터 운영 - 기증물품 수선, 정비, 참고 관리 - 기증품 접수 및 수혜자 전달 위한 수송팀 운영 - 수혜자 발굴 및 실태 파악 위한 봉사팀 월회 봉사	80여명	159,455,510
사랑의119	2008년 1월	- 긴급재난 구조활동 - 타기관(타교회, NGO, 한국교회회랑봉사단 등) 연합활동 - 평상시 클린강남(교회인근 정화사역), 어려운 이웃 집수리 등 - 봉사자 교육훈련(소방, 의료, 방재, 구조장비 등)	80여명	18,800,873

4) 호스피스

(1) 사업 비전 및 방향

암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투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통해 환자가 남은 삶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투병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육적, 정서적, 사회적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함

(2) 사업 내용

- 가정호스피스: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들 대상 가정방문 사업 (20개팀)
- 병원호스피스: 입원하여 투병하는 환자들 대상 병원방문 사업 (9개팀)
- 찬양팀: 환자와 병원을 찾아가서 치유찬양으로 섬기는 사업
-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연 2회, 전반기 16주, 후반기 13주 교육과정
- 사랑의울타리: 사별로 한부모를 잃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섬기는 공동체 사업
- 좋은 아빠 좋은 친구들: 사별한 형제들의 공동체 모임 (월 1회)
- 주바라기: 사별 후 2년 미만 자매들의 공동체 모임 (월 2회)
- 살롬회: 사별 후 2년 이상 자매들의 공동체 모임 (월 2회)

Ⅲ. 연구방법

1. 심층면접

1) 연구 참여자 선정

심층면접 참여자는 현재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사역 발전방안을 수립해나가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교회 복지사역 관계자들이다. 사랑의교회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인 이웃사랑선교부와 교회 산하 복지재단인 사랑의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초기 면접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추가적인 면접 대상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최종 면접 참여자는 12명이며 참여자들의 특성을 다음의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 심층면접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소속부서	직분
참여자 1	남	50대	이웃사랑선교부	목사
참여자 2	남	40대	이웃사랑선교부	목사
참여자 3	여	40대	이웃사랑선교부	집사/실장
참여자 4	남	50대	사랑의복지재단/사랑의복지관	목사/관장
참여자 5	남	40대	사랑의복지재단/반포복지관	집사/관장
참여자 6	남	60대	사랑의복지재단	장로/이사
참여자 7	남	30대	사랑의복지재단	집사/과장
참여자 8	남	40대	교회행정	목사/행정수석
참여자 9	남	40대	국제제자훈련원	목사/EP
참여자 10	남	60대	장로회	장로/행정수석
참여자 11	남	60대	호스피스	목사
참여자 12	남	40대	북한사랑의선교부	목사

2) 면접의 목적 및 내용

본 심층면접의 목적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핵심 관계자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고, 이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복지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복지사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심층면접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지금까지의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향후 사랑의교회가 복지사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2010년 1월 26일에서 2월 10일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참여자들의 소속 부서 내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일대일 면접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50분 정도이다. 이웃사랑선교부에서 먼저 면접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이후 연구자가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면접 실시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비밀보장과 면접내용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면접내용 녹음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전체 면접내용이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원자료화하였다.

자료분석은 Struass와 Corbin(1990)의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녹음내용을 듣고 필사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범주들을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상위 범주화하였다.

2. 설문조사

1) 조사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는 본 교회 교역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역자는 현재 사랑의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전임 교역자들 가운데 설문조사가 어려운 외국인 교역자를 제외한 114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인 대상 조사는 사랑의교회 목양 사역의 핵심인 소그룹 모임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고, 청년부와 기드온(30대 이상 미혼자로 구성된 부서) 소속 성인 교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전체 목양 9개 팀에서 팀별로 12개~14개 일반 다락방을, 목양팀(1개)과 전문팀(8개)에서 총 9개 전문 다락방을 선정하되, 팀 소속 교역자별로 1개~3개 다락방을 선정하고, 각 다락방마다 평균 4명의 교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125개 다락방,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락방을 선정하는 과정에 남자, 여자, 여직장인 다락방의 비율이 고려되었다. 청년부와 기드온에서는 각각 50명의 교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자 및 교인에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그리고 사회봉사 및 구제활동 관련 참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내용은 교역자나 교인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교역자에게는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예산, 인적자원, 조직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고, 교인에게는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담당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하였다. 또한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있어서 사회복지활동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를 묻는 문항은 교역자에게만 질문하여 알아보았다.

〈표 3〉 설문조사 내용¹⁹⁾

영역	교역자	교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수행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사회복지활동 예산 - 한국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사랑의교회 내 지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예산, 인적자원, 조직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담당기관 및 부서에 대한 인지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법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범위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 역할 및 주력 영역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전개 형태 -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 	/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불참 이유 -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 - 사회봉사활동 지속기간 및 내용 - 사회봉사활동 참여 동기 - 사회봉사활동 시 어려움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변화 - 사회봉사 관련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후원활동 참여 여부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사랑의교회 이웃사랑선교부의 협조를 받아 2010년 5월 18일에서 6월 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전임 교역자 114명에게 배부된 설문지 중 77부가 회수되었는데, 77부 중 2부는 교인용 설문지에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75부를 분석하였다. 교인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542부가 회수되었으며 542부 모두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15를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9)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표 3〉의 설문조사 내용 중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황을 이해 하는데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심층면접조사 결과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문제, 즉 연구 참여자의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세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분석결과와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	복지사역의 목적	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
		② 복지사역이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복지사역의 자리매김	① 복지사역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② 복지사역은 제자훈련의 열매
		③ 복지사역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수행되어야 함
평가	전반적 수준	① 크게 성장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쉬움
		② 봉사사역보다는 말씀사역
	물질적 자원	① 최대한하고 있음
	인적 자원	① 사회봉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함
		② 통합적인 인적 자원의 연계가 어려움
		③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부족함
	조직/행정	① 협력사역이 어려움
		② 관리 및 시스템이 취약함
③ 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이 동떨어짐		
		④ 효율성이 부족함
발전방안	현 사역에 대한 정비	① 복지재단 중심의 복지사역 강화
		② 목회자와 복지전문가의 역할 분담
		③ 목양과의 연계 강화
		④ 지도층의 적극적 참여
	비전 수립	① 복지사역의 모델 제공
		② 지역사회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품는 사역
		③ 선택과 집중
		④ 소규모교회/미자립교회의 복지사역 지원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크게 교회 복지사역의 목적과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서 복지사역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으며, 따라서 교회가 복지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구원에 협력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복지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구제와 사회봉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음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아무런 다른 목적 없이 도왔던 것처럼 교회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소명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결국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다. 특히 '제자훈련하는 교회'인 사랑의교회에서 복지사역은 제자훈련의 열매이며, 따라서 훈련받은 성도는 봉사하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본 교회가 수행해 온 복지사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복지사역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행정 등 세부적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하위범주화되었다.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 현재 본 교회의 복지사역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주어진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났다.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드물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역이 다른 교회들에 모델이 되어야 하는 사랑의교회의 위상에 맞는 수준에는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사역에 대한 이러한 아쉬움은 성도들이 '말씀사역', 즉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이어지는 순장사역에 집중하면서 봉사사역에 충분한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복지사역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 참여자들은 물질적 자원에 있어서는 교회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랑의복지재단 산하 기관에서도 재단의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봉사사역에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사회봉사를

위한 인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순장사역과 봉사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 반복하여 참여하면서 지쳐버리는 현상도 있다고 하였다. 인적 자원의 통합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교회 내에 막대한 인적 자원, 특히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사역에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역 영역에서의 인적 자원의 전문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봉사자들에게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봉사의 수준을 향상시켜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직과 행정 차원에 있어서는 먼저 협력사역이 쉽지 않고 행정적 관리나 시스템이 취약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복지사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사랑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가 크고 조직이 방대한데다가 각 교역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돌아보거나 서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전체 사역을 5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행정목사를 두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역의 영역에서 특별히 제기된 문제는 사랑의복지재단과 산하 기관들이 교회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조직/행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전반적인 복지사역의 효율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교회의 복지사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역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가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현 사역에 대한 정비에 있어서는 다수가 복지재단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지사역의 확대와 전문성 고양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복지정책과 공조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와 복지전문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급속히 확충되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교회의 복지사역이 국가 정책과 동떨어져 비효율적인 사역이 되지 않게 하려면 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영작신앙적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복지전문가는 복지실무 영역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사역과 목양사역 간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복지사역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이 목양사역에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역 간에 연계가 더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사역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중직자들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생활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지도층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장단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우선,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이 목표로 해야 할 바는 전국 교회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지사역의 모델을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사랑의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사역의 범위에 대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시작하여,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선교와 연계하여 전 세계를 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랑의교회가 헌신해야 할 복지사역의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으니 사랑의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만큼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원을 집중시키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가 향후 보다 본격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복지사역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복지사역의 전략, 재정,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미자립 교회들의 복지사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2. 설문조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특성

(1) 교역자

본 조사대상 교역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교역자

(N= 75)

영역	응답값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67 (89.3)
	여	8 (10.7)
연령	35세 미만	12 (16.0)
	35세 이상~40세 미만	28 (37.3)
	40세 이상~45세 미만	21 (28.0)
	45세 이상	14 (18.7)
결혼상태	미혼	8 (10.7)
	결혼	67 (89.3)
학부 전공	신학	30 (40.0)
	비신학	41 (54.7)
	무응답	4 (5.3)
직분	목사	62 (82.7)
	강도사 이하	12 (16.0)
	무응답	1 (1.3)
소속부서	목양사역	30 (40.0)
	전문사역	23 (30.7)
	교육부서	21 (28.0)
	무응답	1 (1.3)
전체사역기간	5년 미만	5 (6.7)
	5년 이상~10년 미만	20 (26.7)
	10년 이상~15년 미만	32 (42.7)
	15년 이상	17 (22.7)
	무응답	1 (1.3)
사랑의 교회 사역기간	5년 미만	48 (64.0)
	5년 이상~10년 미만	20 (26.7)
	10년 이상~15년 미만	2 (2.7)
	15년 이상	2 (2.7)
	무응답	3 (4.0)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경험 있음	25 (33.3)
	경험 없음	49 (65.3)
	무응답	1 (1.3)

(2) 교인

본 조사대상 교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교인 (N= 542)

영역	응답값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43 (26.4)
	여	393 (72.5)
	무응답	6 (1.1)
연령	30대이하	147 (27.1)
	40대	194 (35.8)
	50대이상	195 (36.0)
	무응답	6 (1.1)
결혼상태	미혼	102 (18.8)
	결혼	408 (75.3)
	기타	25 (4.6)
	무응답	7 (1.3)
직업	자영·생산·노무·서비스업	118 (21.8)
	사무·전문·학생	142 (26.2)
	전업주부	215 (39.7)
	무직·기타	67 (12.4)
교육수준	고졸이하	60 (11.1)
	대졸	365 (67.3)
	대학원이상	108 (19.9)
	무응답	9 (1.7)
가족의 월소득	250만원미만	81 (14.9)
	2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09 (20.1)
	40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122 (22.5)
	550만원 이상	132 (24.4)
	무응답	98 (18.1)
직분	장로·안수집사·권사	76 (14.0)
	서리집사	257 (47.4)
	일반성도	187 (34.5)
	무응답	22 (4.1)
신앙생활기간	10년 미만	93 (17.2)
	10년 이상~20년 미만	103 (19.0)
	20년 이상	316 (58.3)
	무응답	30 (5.5)

2)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1)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수행에 대한 전반적 인식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교역자 및 교인들의 일반적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교역자는 100%, 교인은 9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데에는 교역자의 95.9%, 교인의 92.3%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역자의 96.0%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는데 교인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82.0%만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도 전체의 18.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93.3%, 교인의 93.8%가 동의하였다.

즉, 교역자의 대부분이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구제 및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인의 경우는 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활동 전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동의하였으나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7>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역자	66(88.0)	9(12.0)	-	-
	교인	268(50.6)	244(46.0)	16(3.0)	2(0.4)
구제 및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교역자	44(60.3)	26(35.6)	3(4.1)	-
	교인	230(43.0)	264(49.3)	39(7.3)	2(0.4)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교역자	31(41.9)	40(54.1)	3(4.1)	-
	교인	121(23.0)	311(59.0)	90(17.1)	5(0.9)
사회복지활동 전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교역자	34(45.3)	36(48.0)	5(6.7)	-
	교인	192(36.4)	303(57.4)	31(5.9)	2(0.4)

(2) 사회복지활동 예산 및 한국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교회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활동에 배정되는 예산 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경우 평균 18.47%로, 교인은 교역자보다 다소 높은 평균 20.82%로 응답하였다. (<표 8> 참조).

<표 8> 적절한 사회복지예산 비율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귀하는 사회복지활동에 교회 전체예산의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역자	72	18.47%
	교인	522	20.82%

한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교역자는 5.46점, 교인은 5.37점으로 나타나 교역자나 교인 모두 ‘보통’ 수준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평가 (10점 만점)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귀하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역자	74	5.46
	교인	531	5.37

4)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1)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앞에서 전반적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역자 및 교인의 인식을 확인한 것과 달리,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역자 및 교인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사랑의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교역자 및 교인의 평가는 각각 7.24점과 6.42점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앞선 한국교회 전반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교역자 5.46점, 교인 5.37점)에 비하면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평가 (10점 만점)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귀하는 사랑의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역자	74	7.24
	교인	521	6.42

(2)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사랑의교회 내 지지 정도

사랑의교회 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에 대한 교역자 및 교인의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사랑의교회 설교나 훈련과정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는 35.2%, 교인은 49.4%로 교역자나 교인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역자들이 그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교역자의 71.6%, 교인의 65.3%가 지지적이라고 느끼는데 비해,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에 있어서는 교역자의 44.6%, 교인의 48.4%만이 참여가 활발하다고 응답하여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지지정도와 실질적 참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하여 설교나 훈련과정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다루는 정도나 교인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활발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랑의교회에서 설교나 훈련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활동이 충분히 다루어진다.	교역자	1(1.4)	25(33.8)	44(59.5)	4(5.4)
	교인	33(6.3)	227(43.1)	252(47.8)	15(2.8)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지지적이다.	교역자	4(5.4)	49(66.2)	20(27.0)	1(1.4)
	교인	31(5.9)	313(59.4)	177(33.6)	6(1.1)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다.	교역자	-	33(44.6)	38(51.4)	3(4.1)
	교인	19(3.6)	235(44.8)	247(47.0)	24(4.6)

사랑의교회 전체적으로 설교나 훈련과정에서 사회복지활동이 다루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교역자에게 ‘귀하는 교인들에게 구제 및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귀하께서 지난 1년간 하셨던 전체 설교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는 몇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교역자 개인적 차원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를 얼마나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12〉 참조). 교역자의 74.3%가 교인들에게 구제 및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25.7%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구제 및 사회봉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한 비율은 평균 16.8%로 나타났다.

〈표 12〉 교역자 개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강조 정도

문항	매우 강조한다	강조하는 편이다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귀하는 교인들에게 구제 및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3(4.0)	52(70.3)	19(25.7)	-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하셨던 전체 설교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몇 % 하셨습니까?	평균 16.8%			

(3)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예산, 인적자원, 조직에 대한 평가 : 교역자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관련 예산, 인적자원, 조직에 대한 평가는 교역자에게만 질문하였다. 교역자의 60% 이상이 예산비율은 충분하며(62.2%),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높고(64.9%), 조직과 시스템이 체계적이라고(69.0%) 응답한 반면, 인적자원의 규모 면에서는 30.1%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규모 및 전문성 측면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4.9%, 12.3%, 12.2%로 나타났다.

〈표 13〉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관련 예산인적자원조직에 대한 평가 : 교역자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사랑의교회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활동에 사용되는 예산 비율은 충분하다. ²⁰⁾	2(2.7)	44(59.5)	17(23.0)	-	11(14.9)
사랑의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규모는 충분하다.	3(4.1)	19(26.0)	41(56.2)	1(1.4)	9(12.3)
사랑의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은 높다.	3(4.1)	45(60.8)	14(18.9)	3(4.1)	9(12.2)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은 체계적이다.	5(6.8)	46(62.2)	16(21.6)	1(1.4)	6(8.1)

5)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1)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법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역자의 응답 내용을 보면(〈표 14〉 참조), 1순위로는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응답자의 64.0%가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효율적 조직’(12.0%), ‘인적 자원’(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교역자의 38.7%가 ‘인적 자원’을 꼽았으며, ‘효율적 조직’(25.3%), ‘물질적 자원’(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교역자의 21.9%가 ‘인적 자원’을 꼽았고, ‘물질적 자원’(19.2%), ‘효율적 조직’(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인들의 응답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교인 응답자 전체의 63.5%가 1순위로 응답한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였으며, ‘인적 자원’(10.4%), ‘효율적 조직’(9.5%)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교인 응답자의 25.8%가 ‘인적 자원’을 꼽았고, ‘물질적 자원’(22.2%), ‘효율적 조직’(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순위에는 ‘물질적 자원’을 꼽은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인적 자원’(23.0%), ‘효율적 조직’(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교역자나 교인 모두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과 효율적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법

20) 교회사회복지사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복지사역 예산의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복지사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의교회의 경우 복지사역을 전담하는 이웃사랑선교부, 호스피스, 사랑의복지재단 외에도 북한사랑의선교부, 장애인선교부, 지역사회선교부, 의료선교회 등 선교사역과 복지사역을 병행하는 부서가 적지 않은데, 이들 부서의 사역비, 교역자 및 직원의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을 복지사역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전담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순수 사역비만을 살펴보면, 2009년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웃사랑선교부 2,412,691,828원, 호스피스/의료선교회 336,470,000원, 북한사랑의선교부 419,352,000원, 장애인선교부, 265,545,765원, 지역사회선교부 61,904,300원, 사랑의복지재단 1,500,000,000원이다.

내용	1순위		내용	2순위		내용	3순위	
	교역자	교인		교역자	교인		교역자	교인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	1위	1위	인적 자원 (전문인력 포함)	1위	1위	물질적 자원	2위	1위
	48(64.0)	336(63.5)		29(38.7)	136(25.8)		14(19.2)	126(24.2)
인적 자원(전문인력 포함)	3위	2위	물질적 자원	3위	2위	인적 자원(전문인력 포함)	1위	2위
	8(10.7)	55(10.4)		14(18.7)	117(22.2)		16(21.9)	120(23.0)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효율적 조직	2위	3위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효율적 조직	2위	3위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효율적 조직	3위	3위
	9(12.0)	50(9.5)		19(25.3)	104(19.7)		12(16.4)	75(14.4)
물질적 자원	6위	4위	기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4위	5위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확충	7위	4위
	1(1.3)	41(7.8)		7(9.3)	42(8.0)		4(5.5)	51(9.8)
기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4위	6위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확충	5위	4위	기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4위	5위
	3(4.0)	12(2.3)		2(2.7)	44(8.3)		10(13.7)	48(9.2)
시설 자원	5위	5위	시설 자원	5위	6위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	5위	6위
	2(2.7)	15(2.8)		2(2.7)	33(6.3)		8(11.0)	35(6.7)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확충	5위	8위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	5위	6위	시설 자원	6위	8위
	2(2.7)	9(1.7)		2(2.7)	33(6.3)		5(6.8)	32(6.1)
소속 교단 및 교단 산하 교육기관과의 연계	6위	7위	소속 교단 및 교단 산하 교육기관과의 연계		8위	소속 교단 및 교단 산하 교육기관과의 연계	8위	7위
	1(1.3)	10(1.9)		-	18(3.4)		4(5.5)	33(6.3)

(2)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 범위 및 주체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 대상자의 범위와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교역자의 36.8%, 교인의 4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그 범위를 보고 있는 경우인데 교역자의 30.9%, 교인의 25.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범위를 교인이나 교회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교역자의 22.1%, 교인의 27.3%에 이르렀다(〈표 15〉 참조).

〈표 15〉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대상자 범위

구분	교인	교회 인근 지역 주민	서울·수도권 지역 주민	우리나라 전역	기타
교역자	5(7.4)	10(14.7)	21(30.9)	25(36.8)	7(10.3)
교인	54(10.7)	84(16.6)	129(25.5)	216(42.8)	22(4.4)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은 교역자에게만 질문하였는데 74.2%가 교회 내 복지전담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표 16〉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 : 교역자

구분	교역자	당회	교회 내 복지 전담 부서	교회 산하 복지재단	기타
교역자	3(4.5)	5(7.6)	49(74.2)	9(13.6)	-

(3)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 역할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사랑의교회에서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교역자, 교인 모두 1순위에 '독자적인 형태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꼽았고(교역자의 38.9%, 교인의 36.3%), 그 다음으로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꼽았다(교역자의 31.9%, 교인의 34.4%). 2순위에는 '소규모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교역자의 45.7%, 교인의 40.4%),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역할'(교역자의 25.7%, 교인의 23.15)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7〉 참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은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 독자적인 형태의 사회복지활동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을 뿐 아니라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의 연계, 그리고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적 역할

내용	1순위		내용	2순위	
	교역자	교인		교역자	교인
독자적인 형태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역할	1위	1위	소규모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1위	1위
	28(38.9)	193(36.3)		32(45.7)	213(40.4)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역할	2위	2위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역할	2위	2위
	23(31.9)	183(34.4)		18(25.7)	122(23.1)
정부나 기존 사회복지기관에 봉사인력을 제공하는 역할	3위	3위	정부나 기존 사회복지기관에 봉사인력을 제공하는 역할	5위	3위
	12(16.7)	57(10.7)		4(5.7)	80(15.2)
소규모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4위	3위	기존 사회복지기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4위	3위
	5 (6.9)	57(10.7)		6(8.6)	63(12.0)
기존 사회복지기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5위	5위	독자적인 형태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역할	3위	5위
	3(4.2)	40(7.5)		10(14.3)	48(9.1)

(4)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앞서 살펴본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 역할과는 별도로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역자(96.0%) 및 교인(94.2%)은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 지원 필요성

구분	교역자	교인
필요함	72 (96.0)	499(94.2)
필요하지 않음	3 (4.0)	31(5.8)

6)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현황

사랑의교회 교역자 및 교인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현황으로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 사회봉사 관련 교육 경험, 후원활동 참여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

교역자 및 교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는 <표 19>와 같다. 예배봉사나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교회 내 봉사활동을 제외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현황을 보면 조사시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교역자 32.0%, 교인 32.4%에 불과하였으며, 교인의 경우 직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율(53.3%)이 서리집사나 일반성도의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 : 교역자/교인

구분	교역자	교인			
		교인전체	직분별		
			장로/안수 집사/권사	서리집사	일반성도
참여하고 있음	24(32.0)	170(32.4)	40(53.3)	91(36.7)	31(17.2)
참여하고 있지 않음	51(68.0)	354(67.6)	35(46.7)	157(63.3)	149(82.8)

(2) 사회봉사 관련 교육·훈련

사회봉사 관련 교육이나 훈련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20>과 같다. 교역자에게는 사역하면서 교회 사회복지활동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 참여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1/5에도 못 미치는 16.2%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인에게는 사랑의교회에서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1/4에도 못 미치는 22.4%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0〉 사회봉사 관련 교육·훈련 참여 경험

구분	문항	있다	없다
교역자	사역하면서 교회 사회복지활동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 참여 경험	12(16.2)	62(83.8)
교인	사랑의교회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116(22.4)	402(77.6)

(3) 후원활동 참여 여부

마지막으로 교역자 및 교인들의 후원활동 참여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적 후원 현황은 교역자의 47.9%, 교인의 46.5%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인의 직분별로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과 유사하게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정기적 후원 참여율(60.3%)이 서리집사나 일반성도의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 후원 여부

구분	교역자	교인			
		교인전체	직분별		
			장로/안수 집사/권사	서리집사	일반성도
후원하고 있음	35(47.9)	232(46.5)	44(60.3)	109(45.8)	69(40.4)
후원하고 있지 않음	38(52.1)	267(53.5)	29(39.7)	129(54.2)	102(59.6)

V. 사랑의교회 사회복지사역의 발전방안

본 연구는 사랑의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발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복지사역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 12명과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교역자 75명, 교인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현황이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은 사회봉사와 구제가 교회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이며,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복지사역이 “제자훈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은 교역자와 교인들에 의해 한국교회 일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실질적인 사회봉사 참여율은 32.4%로 낮은 수준이고, 설교나 훈련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활동이 다루어지는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교회 차원에서 복지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전체 사역에서 복지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화하며 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양 및 교육사역 전반에서 복지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고, 특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과정에서 사회봉사가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역자들 역시 사회봉사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랑의복지재단 산하기관을 늘리거나 사역의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여 사랑의교회가 수행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업의 양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랑의교회는 복지사역에 적지 않은 물질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행정의 효율성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선교부 사역에 있어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본부, 작은사랑큰기쁨, 선한사마리아인 사역은 모두 대상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이웃사랑선교부 2009년 전체 예산 약 24억원 중 약 18억원이 현금이나 현물 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또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사랑의복지재단이 그 위상 및 규모가 미흡하고, 교회와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하여 복지사역의 효율적 전개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역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랑의복지재단의 위상과 규모를 강화하고 교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사랑선교부와 재단 간의 전문화된 역할분담(예를 들어, 이웃사랑선교부는 교인 사회봉사 교육 및 영적 양육을 전담하고 사랑의복지재단의 확충된 여러 산하기관에서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서 인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인들도 다수여서 전반적으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회 내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적절히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내에 복지사역 전문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교역자와 교인의 사회봉사 관련 교육훈련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위해 준비된 봉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랑의교회가 이웃사랑선교부, 사랑의복지재단 산하기관 등에서 다양한 복지사역을 펼치고 있으나 사랑의 교회의 색채를 잘 드러내는 특징적인 사역이나 타 대형교회의 복지사역과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사역은 뚜렷하지 않아서 복지사역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교회 복지사역의 전문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 복지사역 전문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교역자와 교인들을 위한 양질의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교회가 한국 대형교회의 복지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역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Task Force Team의 구성이 요구되고, 장기적인 복지사역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회복지사역연구소의 설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복지사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크고 작은 한계로 인하여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의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선 인적·물질적 자원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한 소규모·미자립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는 것, 교계 연합 복지사역 기구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해나가는 것, 미자립교회 교역자나 여교역자 은급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 기독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칭)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 강기장변미하이명완최광수. 2004. “기독교 복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저널』 5: 95-114.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 김미숙홍석표이만삭유장춘. 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배. 1994.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 『교회사회봉사총람』 314-370.
- 김지찬. 2007.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pp. 25-38.
- 김청호. 2001.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치준. 2000. “제5장 :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봉사”,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 기독교와 한국사회 7』 160-205.
- 문화규. 2007. “한국교회의 생명목회와 지역사회봉사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민경원. 1999. “교회사회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도시 교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박영호. 2006.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복음과 실천』 가을호: 93-128.
- 박종삼 외. 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박창훈. 2009. “복음주의와 사회사업 및 사회봉사”, 『성결교회와 신학』 22: 102-122.
- 서선희. 1997. “한국교회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성규탁. 199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이론적 틀”, 『신학논단』 20: 193-210.
- 손병덕. 2004. “칼빈의 개혁주의 사회복지 실천과 현대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신학지남』 70(4): 159-172.
- 손용철. 2002.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연구”, 『교수논문집』 255-280.
- 양혜원. 2008.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총신대논총』 28: 147-171.
- 유창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86-135.
- . 2003.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결정요인과 그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145-182.

윤만길. 2009. “한국 교회사회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이만식. 2007.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pp. 787-828.

이성일, 1999. “한국목회자의 사회복지의식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이현주.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53: 12-17.

임승철, 2002.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전광현 외, 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양서원.

정상원. 2009.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연구 - 개인 요인과 교회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검증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정성채. 1998. “기독교목회자의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의식과 태도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정원오·김진우·신영석. 200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완석. 2004. “사회봉사적 교회론 정립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원. 1990.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강수천. 2009. 7.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http://www.yeojufocus.co.kr/sub_read.html?uid=5798§ion=sc1

서육진, 2010. 9. 29. “보육·교육·다문화가정 등 서민 희망복지에 예산 28% 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2882981>

정언성. 2009. 3. 31. “빈곤 대물림, 더 이상 없다!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469

최창민. 2009. 11. 16. “교회 신뢰도 0.7% 상승의 허와 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8>